

만남

07

2018

통권 534호

특별기획 | 기쁨으로 다시 새롭게

특 집 | 양육과 돌봄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락교회

만남의 초점



“믿음으로 복된 가정을 이루며, 행복한 교회를 세워갈 것”을 유치부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영락교회의 새로운 시대’, ‘아곶의 시대’ 새 일꾼들이 손길을 모아 다짐하였다.

- 지난 5월 13일, 베다니광장에서 열린 가족주일 교육부 행사 중에서

만남

2018년 7월호 통권 534호

영락교회 신앙지도 원칙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윤리의 훈련
교회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공의의 실현

4대 목표

교육
선교
성도의 교제
봉사

발행 2018. 7. 1.

발행인 김운성

편집인 정영근

발행처 영락교회 홍보출판부

주소 04552 서울시 중구 수표로 33

전화 02)2280~0114(대)

홈페이지 <http://www.youngnak.net>

디자인 편집회사 도인



사진 이미혜 부선임기자

표지설명



영락주간보호센터
장애인 학생들이
정성껏 만든
월에 작품들을
사진에 담았다.
사진 원종석 기자

교회표어

질서 있고 화평한 교회(고전 14:33상)

차례

이달의 말씀 02 • 2018년의 하프타임을 맞이하여 | 김운성

특별기획 04 • 기쁨으로 다시 새롭게
전교인 전도에 나서다 | 전태성·강태숙·서평화·차정민·나선환

특집 양육과 돌봄

목자가 들려주는 이야기 14 • 그리스도인의 영적 돌봄, ‘듣기’ | 차동혁
교역자와 함께 걷는 산책 18 • ‘기도’, 하나님의 양육과 돌봄을 받는 길 | 김정희

교육 21 • 부모님부터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우대권·목진경·오승현
생활과 역사 속의 기독교윤리 24 • 다양한 윤리, 서로 다른 삶 | 고재길
너 괜찮아? 27 • 누가 방황하는 청년들을 도울 것인가? | 성인경

선교 30 • 선교사는 무엇으로 사는가? | 김춘자
직장선교 33 • ‘직장선교’에서 ‘직장사역’으로 | 방선기

교제 37 • 7월의 영락영화
- 한 여름의 책임기 38 • 책과 함께 떠나는 여름 휴가 | 이규정
42 • 올 여름 방학엔 시편, 잠언, 주기도문을 읽어 봅시다 | 이사도
44 • 한경직목사기념도서관 200% 활용하기
영락의 울타리 49 • 섬세하고 예민한 사랑부 학생들 | 정복희
52 • 그 음성 | 송경희

봉사 54 • 비언어적 전도, 가정복지사역 | 최윤미
55 • 우리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자 | 김송향

교회소식 57 • 2018 교육부 여름사역
58 • 중등부, 고등부 학부모 초청예배 등
65 • 새가족 환영
66 • 영락역사자료 / 목회력
야곱의 우물가 67 • 영락화랑: 아름다운 묵상 / 독자에게 드리는 편지
68 • 윤진경의 함께해보아요-점잇기



김 운 성 위임목사

2018년의 하프타임을 맞이하어

주일 낮 예배를 위해 입장하여 기다리는 십여 분의 시간은 영락교회에 부임한 후 제게 주어진 특별한 경험입니다.

그 시간에는 기도하는 분들도 계시고, 입을 성경 말씀과 부를 찬송을 미리 찾아 놓기 위해 책장을 넘기는 분들도 계시고, 옆 교우들과 인사를 나누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시간은 경건하면서도 약간은 소란하고 부산한 시간입니다. 그러다가 오르간 차임벨이 울리는 순간이 되면, 갑자기 그리고 잠시, 소란스런 소리가 커지다가 아주 조용하고 경건해집니다. 드디어 예배가 시작된다는 생각에 자세를 바로 하여 다시 앉는 움직임이 내는 소리들입니다. 그리고 예배가 시작되어 그 거룩함으로 들어갑니다.

저는 그 시간이 참 좋습니다.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자세와 매무새를 바르게 하는 시간입니다. 흐트러졌던 것들이 제자리를 잡는 것은 생각만 해도 기분 좋은 일입니다. 아무리 조심해도 살다 보면 흐트러질 때가 많은데, 종종 삶이 제자리를 잡

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밥 버포드’란 분이 쓰신 『하프타임의 고수』란 책이 있습니다. 축구 경기에는 하프타임이 있습니다. 전반전이 끝난 후 십오 분 동안의 하프타임이 주어지는데, 이 시간은 감독과 선수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 시간에 전반전 경기를 분석하고, 후반전을 위한 작전을 짭니다. 하프타임을 잘 활용해야 후반전에 이길 수 있습니다.

저자는 인생에도 하프타임이 있다고 합니다. 물리적으로 볼 때 인생의 하프타임은 대략 45세쯤에 찾아온다고 합니다. 축구 선수들처럼 우리도 인생의 하프타임을 만날 때 후반전을 위한 새로운 작전을 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전반부, 즉 어리고 젊은 시절에는 큰 틀에서 거의 모두가 비슷한 길을 갑니다. 학교에 가고, 취직을 하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집을 장만하는 등, 거의 비슷한 길을 따라 삽니다. 그때까지의

인생은 대개 비슷합니다.

그러나 인생 후반부엔 공식이 없습니다. 사람마다 천양지차의 인생을 삽니다. 어떤 사람은 할 일 없고 쓸쓸한 후반부를 맞이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전반부보다 훨씬 아름다운 인생을 삽니다. 이런 차이는 인생의 하프타임을 어떻게 활용했는가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저자는 인생의 하프타임에 위대한 결단을 내리고 삶에 임하는 방향 전환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저자가 원하는 방향 전환은 무엇일까요? 그는 '성공'에서 '의미'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저자의 권면은 전적으로 옳습니다. 젊어서는 오로지 성공 하나를 위해 달려갑니다. 돈 벌고, 출세하기 위해 달려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삶이 안정되고, 지위도 확보되면 어느새 인생의 하프타임을 맞이하게 됩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만약 후반부에도 여전히 전반부처럼 성공과 출세만을 위해 산다면 그런 인생은 추해 보입니다. 나이 많은 노인이 아직도 세상의 명예를 위해 지나친 경쟁을 하는 것은 불품이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삶의 목적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상에 보내신 뜻을 음미해야 합니다. 전반부에 소홀했던 일에 삶을 투자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삭개오는 멋진 전환에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그 날은 그의 인생의 하프타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 여러고에 오셨을 때 그는 나무 위에 올라가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께서서는 세리장인 그의 집에

가서서 기꺼이 함께 식탁에 앉으셨습니다. 세리를 천대하던 당시에 파격적 사랑을 받은 삭개오의 영혼은 감격적인 전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그는 오직 성공을 위해 달려왔습니다. 그의 성공은 돈이었습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든 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 토색한 재물에 대해서는 네 배로 갚고, 자신의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이웃 사랑을 위해 그는 모든 것을 투자하기로 결단했습니다. 당시 세리의 재산은 거의 모두가 토색한 것이었으므로 그가 네 배로 갚는다면 그는 거지가 될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단을 통해 삭개오는 천박한 부자가 아닌, 거룩한 부자로 우리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6월이 끝나고 7월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2018년도의 절반을 보내고, 하반기를 목전에 두고 있으니, 2018년도의 하프타임을 맞이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2018년도 반환점을 돌면서 우리는 전반기 여섯 달을 회고하고 하반기 여섯 달을 어떻게 살 것인지 결단하며 기도할 때입니다.

예수님은 최고의 인생 코치이십니다. 우리의 전반부 인생에 대해 충고하시고, 후반부를 위한 비전을 제공해 주시고, 삶의 전환을 촉구하십니다. 우리 모두 하프타임의 고수들이 되어 멋진 후반부를 맞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공'에서 '의미'로 전환해 봅시다. 2018년도 하반기 동안 영락 가족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고 많은 열매를 거두시길 기원합니다. **만남**

기쁨으로 다시 새롭게

막연히 울타리 안이라고 생각하고 잘 눈길을 주지 않았던 우리 안의 ‘내적 전도’에 전교회가 기쁨으로 나서고 있다. 선교부(부장 정천우 장로)가 이미 오래전 개척하거나 건축한 농어촌 미자립교회 사역지를 요즘 다시 돌아보며 양육과 돌봄의 손길을 건네고 있다. 그밖에 이달 ‘기쁨으로 다시 새롭게’ 코너에는 천주교와 개신교 사이를 오가는 “오랜 방향을 끝내고 이곳 영락교회에 뿌리를 내리고자 한다”는 새가족부(부장 장병건 장로) 신앙교육 수료생의 간증문이 실린다. 특히 청년부(부장 나선훈 장로)는 올해 매우 특별한 하기선교봉사를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다. 의례적인 하기봉사가 아닌 대학부(부장 박홍준 장로)와 연계하여 알곡 같은 내적 전도의 풍성한 열매를 꿈꾸며 나아가고 있다.



1 남사교회 전경(현재 모습)

2 대학부 체육대회

3 본당 앞에 새로 마련한 새가족 접수 부스

4 정산푸른별교회 고광진 목사님과 교인들(2018년 1월)



선교지와 함께 양육과 돌봄

-영락교회 농어촌 미자립교회 사역을 돌아보며



전태성 집사
인천교구
선교부 서기

농어촌 미자립 교회 선교사역을 되돌아보다

지난 3월 28일 특별새벽기도 중 김운성 목사님께서 ‘새로운 종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하시면서 신대원 동기 목사님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동기 목사님은 시골 교회에서 27년간 사역하셨는데 교인이 27명이라며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있을까?” 라고 말씀하시며 우셨다한다. ‘예수님 사랑하는 종목’을 택하여 예수님 한 분만 사랑하며 평생을 시골 교회에서 헌신하신 동기 목사님 시무하시는 교회가 영락교회 여전도회의 지원(1985년 5월)으로 지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교회의 농어촌 미자립교회 선교사역을 되돌아보게 되었다.

1946년 인천제일교회 지원을 시작으로 오늘에 이른다



인천제일교회 개척 (1946년 모습)

영락교회는 1946년 11월 15일에 인천제일교회를 개척한 것을 시작으로 선교부(부장 정천우 장로)와 선교부 산하 자치단체에 의해 계속하여 활발히 지원활동을 해오고 있다. 처음에는 도시와 농촌을 구별하지 않고 시대적 변화와 필요에 대응하여 우선적으로 복음화가 필요한 지역으로 목회자를 파송하고 교회를 개척하여 지역 발전과 교회 부흥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요즈음 농어촌 교회 지원은 총회/노회와 협력하여 농어촌 미자립교회의 교역자 신수비, 전도활동 후원, 교회당과 교육관 신·개축과 보수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환되었다. 또한, 후원하고 있는 미자립교회를 매년 방문하여 목회 상황과 교세, 건물, 재정 상태 등 교회의 실제 상황, 후원의 지속 타당성, 자립

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살펴주고 있다. 선교대회 기간 중에는 후원하는 농어촌 교회 목회자 부부들을 초청하여 위로와 격려로 용기와 희망을 주고 있으며, 농어촌 선교전략 세미나를 개최하여 시대에 맞는 선교전략을 연구하고 교회 성장 모델을 개발하여 소개하고 있다. 영락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농어촌 미자립교회 사역을 살펴 보면 교회당 건축 76곳을 포함하여 농어촌 교회 225곳에 도움을 드렸음을 알수 있다

농어촌 미자립 교회연대별 후원 현황(교회수, 2018년 5월 기준)

년대 \ 사역	개척	건축	신수비	합계
1940	4	1	1	6
1950	27	1	3	31
1960	22	-	1	23
1970	29	3	6	38
1980	12	26	17	55
1990	-	25	2	27
2000	-	15	-	15
2010	-	5	25	30
합계	94	76	55	225

농어촌 교회를 다시 찾아가다

그러나 농어촌 선교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첫째는 1960~70년대 이후 산업화의 거센 물결을 따라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도시로 대이동을 하여 농어촌 지역은 노동 인구가 감소했고 나이가 60~90세에 이르는 부모들만 농어촌을 지키는 형편이 되었다. 이에 따라 농어촌 교회 성도 수가 현저히 줄어 먼 단위 미만의 교회들에는 나이 많은 성도들 5~10명만 남아 있게 되어서 교회 성장과 확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둘째는 교인 수 감소에 따른 교회 재정의 어려움이다. 셋째는 농촌의 남성들이 그들과 결혼하려는 여성이 없어 외국인 여성을 아내로 맞아 다문화 가정을 이루고 있어 이들 가정을 위한 별도의 사역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렇게 힘든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농어촌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남사교회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 소재) 이석주 목사님과 정산푸른별교회(충청남도 청양군 정산면 소재) 고광진 목사님을 만나 뵈었다.

이석주 목사님(남사교회)은 농어촌 목회를 위하여 사전에 훈련이 필요하며 이러한 훈련을 통하여 목회자들이 준비되면 좋겠다고 하시면서 목사님의 세 자녀와 사모님이 남사교회 사역에 큰 힘이 되었다고 하셨다. 그리고 어려울 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채우심을 간증하시면서 더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북한 동포와 탈북민을 오히려 걱정하셨다(4쪽사진 11).

고광진 목사님(정산푸른별교회)은 교회의 울타리를 마을 바깥으로 넓혀서 목회를 하고 있으며 ‘마을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라는 구호를 가지고 선교적 목표 3가지 - 첫째, 마을을 섬기는 교회, 둘째, 차세대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교회, 셋째, 다문화 가정과 함께하는 교회-를 가지고 목회 활동을 하고 있으며, 자비량 선교를 하셨던 사도 바울처럼 양계사업을 통하여 재정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하신다고 하셨다(4쪽사진 12).

농어촌 교회를 위한 영락교회 선교부의 선교전략

영락교회는 농어촌 사회 현실을 반영하여, 과거의 교회 개척과 교회 성장을 후원하던 패러다임을 농어촌 교회가 지역사회에 희망이 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바꾸었다. 첫째, 농어촌 목회자들과의 지속적인 교류로 때와 시기에 맞는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둘째, 시대에 맞는 농어촌 선교 프로그램 개발-마을잔치, 이미용사역, 성탄절 어린이 초청, 농산물 직거래 등-로 마을과 함께하는 마을 목회를 통한 복음화 활동을 지속하고, 셋째, 농어촌 목회자와 가족을 위한 신수비를 지원하고 있다.

영락교회는 한경직 목사님이 교회를 세우셨던 때부터 지금까지 민족복음화의 기치 아래 농어촌 미자립교회를 후원하였던 초심을 잊지 말고, 한 영혼의 소중함을 새기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농어촌 교회를 살펴보고 지원해야 할 것이다. 지금은 농어촌의 열악한 재정, 다문화 가정의 어려움, 노령화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 가정적 그리고 영적으로 피폐해지기 쉬운 농어촌 교회를 위하여 지속적인 기도와 후원이 더욱 더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마 28:19~20)

새가족부 신앙교육을 마치고



강태숙 성도
강동·송파 교구

부끄럽지만 저는 천주교와 개신교 사이에서 방황하며 10년이란 긴 세월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은 아침에는 성당, 오후에는 교회, 두 곳을 번갈아 다니기도 하면서 얼마나 많이 방황했는지 모릅니다. 어느 곳을 가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저의 간절함과 목마름을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욱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방황하며 낙심에 빠져 있던 어느 날, 자녀 문제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여 직장에서 가까운 곳에 교회가 없을까 생각해 보니 근처에 영락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영락교회로 발걸음을 옮겼고 본당 뒷좌석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수요일, 기도하러 교회에 왔다가 수요 예배까지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날의 감격을 어떤 말로 표현해야 할까요? 당시 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게 됐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했던 저의 목마름과 간절함을 채울 수 있어서 정말 떨 듯이 기뻐했습니다.

이후 저는 결심하고 바로 주일 예배에 참석하게 됐고, 새가족으로 접수한 뒤 신앙교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저는 참으로 많은 변화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전에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을 보냈지만, 이제는 불평과 불만보다는 늘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전의 저는 남을 함부로 판단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판단보다는 주님의 사랑으로 이해하고 포용하려는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하였으며, 이제는 더 이상 기복 신앙이 아닌 더욱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어쩐지 낯설게 느껴졌고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에게 위로와 큰 힘이 되어 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새가족부 가이드 집사님이십니다. 집사님께서 늘 저에게 안부 문자를 보내주시고 격려해 주심으로 저는 다시 한 번 위로와 힘을 얻고, 드디어 마지막 새가족부에서 5주간의 신앙교육을 마친 뒤 수료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오랜 방황을 끝내고 이곳 영락교회에 뿌리를 내리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락교회 성도로서 부끄럽지 않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징검다리를 건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사람들은 누구나 변화를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인지 변화보다는 익숙한 것을 더 선호하고, 익숙한 환경에 머무는 편안함을 선택합니다. 예배드릴 때만 보아도 그 넓은 공간에 사람마다 제각각 자기 영역 혹은 자기 좌석이 있지 않습니까. 우스갯소리로 저의 지인 중 한 명은 출장으로 지방에 내려가 새벽예배를 드리는데 기도하다가 중간에 생면부지의 연로하신 여성도 한 분이 자신의 등짝을 두드리더니 “저리 비켜줘요 내 자리요”해서 머쓱하게 자리를 내어드렸던 기억이 있다고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변화보다는 익숙한 곳을 선택해야 마음 편한 것이 사람입니다.

교육부 내 부서들마다 학생들 또는 구성원들이 졸업과 동시에 다음 부서로 가는 것에 대한 거부반응이 곳곳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저는 창세기 12장 1-3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요구 앞에 서 있는 아브라함의 심정을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이들 역시 얼마나 낯설고, 어렵고, 때론 귀찮을까.

교육부 주관으로 진행하고 있는 징검다리-연계사역은 교육부 소속부서인 중등부에서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구성원들이 익숙한 것으로부터 결별하고 낯선 곳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귀한 사역입니다.



서평화 전도사
청년부

본토를 떠나는 이들은 홀로 서야 하기에 누구나 두렵고 낯선 심정이지만, 그럼에도 그곳에서 뜻밖의 환대를 경험한다면 낯섬과 두려움은 설렘과 기대감으로 바뀔 것입니다.

멘토-멘티 프로그램을 통한 연계사역

대학부 벗님들이 아직은 낯선 청년부 토양에 잘 뿌리내리고 정착할 수 있도록 청년부의 청년들이 올 한 해 더 열심히 고민하며 사역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 진행된 멘토-멘티 프로그램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대학부 학생들이 대학 졸업을 앞두고 사회로 나가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자신의 관심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멘토 형, 언니들을 만나서 현실적인 고민을 나누고 실질적인 조언을 얻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케이크와 고깔모자를 쓰고 축복송을 불러주는 것만 환대가 아니라, 자기 삶의 실질적 고민을 들어주며 한발 앞선 선배로서 작은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이만한 환대가 또 있을까 생각하며 올해 처음으로 멘토-멘티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제1회 행사로 처음 진행하는 사역이라 미흡하겠지만 청

년들의 자발적 참여 속에 우선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피드백은 ‘좋았다’였습니다. 이 자리가 단순히 대학부 벗님들에게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자리이기보다 우리가 ‘영락’이라는 한 공동체 안에서 남이 아니라 가족으로서 연대할 수 있다는 기대와 동시에, 도움의 손길을 주저 없이 내밀어 주는 사랑의 공동체임을 확인하는 자리이기를 희망합니다.

함께 동행하는 대학부·청년부 연계사역

앞으로 청년부는 제2회, 제3회 멘토-멘티 프로

그램을 통해 대학부 벗님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연합하는 가운데, 6월에는 대청연합예배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혜의 장을 공유하고, 마지막으로 8월에는 전라북도 장수지역에서 하기선교봉사로 함께하며 땀 흘리고 수고하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귀한 징검다리-연계사역 속에서 대학부와 청년부 사이에 화합의 꽃이 피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영락의 공동체가 되도록 많은 성도님들의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몸된 공동체로 이어지는 대학부와 청년부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대학부-청년부

청년부는 대학부와 소통을 통해 하나되고 연계 사역으로 많은 것을 계획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대학부-청년부 연계 사역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대학부 벗님들이 청년부가 다른 교회의 공동체 같다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을 심심찮게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대학부 졸업 후에 청년부에 적응하지 못하고 예배만 드리는 대학부 벗님들도 많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못하고 부서 간의 괴리감이 커져가는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올해 청년부와 대학부는 멘토-멘티 프로그램, 대청연합예배, 대-청연계 하기선교봉사라는 여러 사역들을 통해 양 부서 간 접촉점을 찾



차정민
청년부 광야소리

아가고 유대감을 형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학부-청년부를 위한 교우들의 기도

짧은 지면을 빌어, 여러 사역 중 지난 4월말 이미 진행한 멘토-멘티 프로그램 사역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역에 멘토로 참여했던 저의 개인적 소감과 작지만 ‘관계’라는 열매들로 맺혀가는 과정을 나누며 사역이 나날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대학부 멘티가 청년부 멘토에게 질문하며 대화하는 멘토-멘티 프로그램

멘토·멘티 프로그램은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청년들이 이제 학업의 과정을 마치고 사회로 진입하려는 대학부 벗님들의 멘토가 되어 만남을 갖는 프로그램입니다. 특별히 전공 및 관심 영역별 소그룹으로 나뉘어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대학부 벗님들은 각 소그룹 안에서 크리스천으로서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중요한 시기에 회사와 취업에 관한 현실적인 고민들을 청년 멘토들에게 질문하며 대화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와 함께했던 대학부 멘티님들은 모두 문과생이었고 저 역시 문과생이었기에, 대학부 멘티님들은 제가 20대에 가졌던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먼저 그 시기를 겪었을 뿐 멘토라고 해서 더 잘난 것도 아니지만, 가능하다면 벗님들에게 유익한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비록 저의 현실적 조언들이 대학부 벗님들에게 명쾌한 솔루션을 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

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영락 청년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눌 수 있음에 또한 감사했습니다. 만남의 시간이 조금 짧아서 아쉽기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후 몇몇 대학부 벗님들에게 고맙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오히려 제가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이후 오며 가며 인사도 하고 안부를 묻다보니 좀 친해진 것 같기도 합니다. 앞으로 그 친구들을 위해 더욱 기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한 다른 멘티 친구들도 연락주시면 언제나 환영해요! 연락주세요.

대청연합예배(6월)와 앞으로 있을 하기선교봉사(8월)에 대학부 벗님들의 참여를 통해 대학부와 청년부의 벽이 점점 허물어지길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다음 세대인 영락 청년에 대한 성도님들의 관심과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올해 특별한 하기선교봉사

청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가까이에서 청년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특별한 은혜입니다. 저는 우리 영락 청년들을 바라볼 때마다 왜 그리도 사랑스럽고 감사한지요. 아마 저희 집 삼남매도 대학부와 청년부를 거치면서 하기선교봉사와 해외선교를 통해 하나님을 만난 간증들이 있기에 청년들을 향한 애착이 더욱 큰 것 같습니다.

대학부와 연계하여 복음의 씨를 뿌리는 2018년 청년부 하기선교봉사

금년 하기선교봉사는 대학부와 청년부가 연계하여 사역합니다. 희망하는 대학부 벗님들도 함께 참여함으로써 대학부와 청년부가 잘 연계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락 청년들은 대학부 아우들과 함께 1년에 한 번뿐인 여름휴가를 하나님께 바치고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릴 것입니다.

8월 12일(주일) 저녁에 출발해 8월 16일(목)까지 전북 장수 지역에서 제42차 하기선교봉사를 펼칠 계획입니다. 전북 장수 지역은 지난 1983년과 2003년에도 영락 청년들이 선교봉사활동을 펼친 지역입니다. 이번에는 전북동노회 장수시찰 소속 장수교회를 포함한 6개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 청년들의 다양한 은사를 활용해 전도팀, 찬양팀, 의료팀, 이·미용팀, 치료 마사지팀 등의 봉사를 펼치



나선환 장로
관악·동작·금천교구
청년부장

며 청소년 연합사역과 어린이 연합사역을 통해 지역 주민들을 섬기고자 합니다.

선교봉사지역 출신 서울지역 대학진학자와 영락교회의 연계 강화

무엇보다도 청소년 연합사역을 통해서 현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대학을 진학한 학생들이 영락교회로 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기선교봉사를 통해 우리 교회 내적으로 대학부와 청년부의 연계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선교봉사지역 출신 서울지역 대학진학자와 영락교회의 연계를 강화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하기선교 기간 중에는 김운성 위임 목사님께서 현지를 방문하셔서 우리 청년들을 격려해 주시고 일일 집회도 인도해 주실 예정입니다. 이어서 9월 추석 연휴기간 중에 펼칠 제27차 해외선교봉사는 청년부 후원 선교사가 사역 중인 터키지역, 그리고 오네시모 사역을 위한 동북아 C국 접경지역을 방문하고자 합니다.

예배의 회복을 꿈꾸는 청년 공동체

청년부는 여러 가지 사회적 여건과 환경으로 인

해 취업이나 결혼에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가는 이른바 ‘3포 세대’ ‘n포 세대’ 젊은이들이 모인 곳입니다. 하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애쓰는 젊은이들의 모습을 보며 ‘역시 우리 영락의 청년들은 그래도 다르구나!’라는 기특한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청년들은 어려운 사회적 여건을 탓하거나 낙담하지 않고 진정한 예배의 회복을 통한 영적 부흥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매주 금요일마다 저녁 8시부터 50주년기념관 소강당에서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때로는 제가 기도회를 비롯한 청년부 모임에 늦은 친구들을 보며 “왜 이렇게 늦었니? 지난주에 왜 안왔어?”라고 채근이라도 하면 “장로님! 우리 아직 회사에서 말단이에요. 우리 이러다 직장에서 잘려요!”라고 솔직히 털어놓는 친구들을 볼 때 측은한 마음이 들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청년들의 온전한 섬김과 예배에 대한 갈망이 얼마나 뜨거운지를 느끼게 됩니다.

청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제가 지난해부터 청년부장으로 섬기면서 영락 청년들을 향한 성도들의 헌신적인 사랑과 기도의 모습을 접하게 된 경우가 여럿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청년을 극진히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됩니다. 이 글을 빌어 기억나는 두 가지 사연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선 기억나는 건 지난해 여름 강원도 태백으로 하기선교봉사를 떠나는 날 아침의 일입니다. 뽕엘기도실에서 아침 6시에 발단예배를 드리고 출발하려는데 연세 지긋하신 권사님께서 급하

게 저를 찾아오시더니 5만 원권 지폐 여러 장을 손에 쥐어 주시는 겁니다. 권사님의 형편이 그리 넉넉하지는 않은 것 같아 죄송한 마음에 정중히 사양을 하니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빨리 가져다주라고 하시네요”라며 “꼭 무명으로 해 주세요”라고 말씀하시고는 급히 나가셨습니다. 저는 권사님의 그 모습을 보며 청년들을 간절히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져 눈물이 나오며 가슴이 먹먹해져 왔습니다.

또 하나는 지난 5월 25일(금)부터 27일(주일) 저녁 찬양예배까지 진행되었던 2018 청년선교비전 기간 중의 일입니다. 주일 찬양예배에 들어가기 전 어느 권사님이 저를 찾아오시더니 선교헌금 봉투를 무명으로 주시며 청년부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을 위해 사용해 달라고 당부하시는 겁니다. 제가 평소 그 권사님의 어려운 형편을 너무도 잘 알기에 하나님께서 청년들을 얼마나 지극히 사랑하시는가를 새삼 더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청년들을 품고 섬길 일꾼을 세우는 청년 공동체

평소 ‘영락 청년부가 천 명은 되어야지’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에 ‘1004 부흥’을 위해 청년부 친구들과 함께 기도해왔습니다. 청년부를 잠시 떠난 친구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초청행사도 시행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청년부에 처음 오는 신입 청년들이나 다시 돌아온 청년들을 품고 섬길 리더의 수가 부족함을 절감하고 많은 청년 리더들이 세워지도록 리더 양육 프로그램을 통해 신실한 리더들을 양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만남**

특집

양육과
돌봄

- 목자가 들려주는 이야기
그리스도인의 영적 돌봄, '듣기'
- 교역자와 함께 걷는 산책
'기도', 하나님의 양육과
돌봄을 받는 길

그리스도인의 영적 돌봄, '듣기'



차동혁 목사
서초교구, 상담부

관계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 진심 어린 듣기가 필수적

미국의 한 전도훈련교재에서 전도의 실례 한 토막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실화의 주인공은 대학생선교회(CCC) 산하 스포츠선교단체(Athletes in Action)의 간사인 잰(Jan)입니다. 한 번은 이 젊은 여성이 전도훈련 컨퍼런스에 참석하게 됩니다. 컨퍼런스에서는 전도와 관련된 여러 주제들이 다뤄졌습니다. 그중 유독 잰의 관심을 끈 강의를 있었습니다. 그것은 듣기의 중요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강의의 요점은 이렇습니다. 전도의 어려움은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데 있다. 전도하려고 대화를 시작할 때 진심으로 그 사람의 말에 귀기울여주기 보다는 나의 의견을 개진하는 데 더 빠를 때가 많다. 그러나 전도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 말하기에 앞서 진심 어린 듣기가 필수적이다.



강의가 끝나고 켄은 친구들과 함께 숙소인 호텔의 스파에서 피로를 풀게 됩니다. 그때 두 명의 십대 소녀들이 스파 풀에 합류합니다. 그중 브리타니라는 소녀가 옆에 앉은 친구에게 자신이 곧 참석하려고 하는 마법승배모임에 대해 열띠게 말합니다. 옆에서 듣던 켄이 속으로 생각합니다. ‘평소 같으면 이 아이 생각이 잘못됐다고 따졌을텐데... 오늘은 이 아이 말을 들어줘야겠다.’ 그러곤 말을 건넵니다. “와, 너 정말 이 일에 신이 난 것 같구나.”

이 말 한 마디에 브리타니는 고무되었고, 자신이 왜 그렇게 마법승배의식에 매료되었는지를 5분 간 털어놓게 됩니다. 얼마 전 일입니다. 고등학생인 그녀가 학교에서 한 사건을 당합니다. 그 사건은 이 아이에게 큰 트라우마가 되었습니다. 상처 입은 아이 곁에 있어주려고 한 학교 친구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마법승배모임의 사람들이 그녀를 그들의 모임에 받아주었던 것입니다. 그녀가 말합니다. “그저 이 힘든 고등학교 시절을 버티는 데만도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전 앞으로 평생 심리치료를 받아야만 살 수 있을 거예요.”

켄이 말합니다. “그동안 네가 겪은 그 모든 고통에서 자유하게 되는 미래를 꿈꾸는 것조차 어려운가보구나?” 소녀는 눈물을 글썽거리며 진솔하게 대답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저도 다시 태어나고 싶어요. 완전히 처음부터 시작하고 싶어요.” 오랜 침묵 후에, 소녀에게 묻습니다. “정말 다시 태어나고 싶으니?” 소녀가 대답합니다. “네, 정말 그래요.”

진실한 듣기는 영적 돌봄의 첫걸음

사연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사연을, 그것이 기분 좋은 사연이든 마음 아픈 사연이든 다른 이들에게 이야기하고 공감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때로는 인정의 욕구에서, 때로는 사랑의 욕구, 때로는 소속감의 욕구에서 비롯됩니다. 그러기에 사연을 들어주려는 자세만으로도 그 사람의 숨은 욕구를 채워주는 비결이 되곤 합니다.

전도에 있어서든 다른 어떤 관계에 있어서든 듣기의 중요성을 무시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이 사용하는 전체 시간의 40% 이상을 듣기 활동에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듣기의 비중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단순히 귀에 들리는 것을 그저 듣는 행위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건성으로 듣는 것은 오히려 안 듣는 것만도 못할 때가 많습니다. 타인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귀기울여 들어줄 때 그 사람은 자신이 한 인격으로서 인정받는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의 문을 열게 됩니다. 마치 모진 시집살이를 하다 모처럼 친절에 와 친절엄마 품에서 마음껏 울며 투정하는 어린아이가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기에 진실한 듣기는 말하는 이의 내면에서 웅크리고 울고 있는 상처 입은 어린 아이를 보듬어 주는 돌봄의 첫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영적 돌봄에서 그리스도인은 왜 듣기의 행동을 취하는가?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러한 듣기는 조금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앞서 켈과 브리타니의 이야기에서, 단순히 켈이 잘 들어주었기에 브리타니의 마음이 열려 거듭남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두 사람의 대화를 곰곰이 생각해보면, 켈의 잘 들어줌이 오히려 브리타니의 잘못된 발걸음에 윤활유를 치는 격이 될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는 항상 이런 모범답안대로 결과가 도출되지만도 않습니다.

영적인 문제, 특히 영혼 구원과 영적 돌봄의 문제는 인간의 방법론적인 행위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잘 들어주는 것만으로 모든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초점은 듣기의 행동 자체가 아니라 영적 돌봄에서 내가 왜 듣기의 행동을 취하느냐에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은 바울 사도가 유럽의 첫 도시인 빌립보에 이르러 전도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바울이 안식일에 문 밖 강가에 앉아 있던 여자들을 발견하고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 때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바울의 복음 전도를 듣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바울이 말을 잘해서였을까요? 아니면 바울이 루디아의 숨은 사연을 잘 들어주었던 것일까요? 14절에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마음을 여시는 분은 주님이시라고요. 켄이 브리타니의 말을 들어 주기로 작정하였기 때문에 브리타니가 마음을 연 게 아닙니다. 켄의 태도가 브리타니를 편안하게 하여 자신의 사연을 술술 말하게 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거듭남이란 영적인 갈망에까지는 이르게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영적인 갈망은 켄을 통해 역사하신 주님이 열어주신 마음의 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듣기는 믿음의 침묵, 믿음의 고백

그리스도인의 듣기는 내가 다른 이의 마음 문을 열고 그의 영혼을 돌볼 수 있다는 자신감에서 오는 행동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듣기는 내 말과 내 능력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믿음의 침묵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듣기는, 나의 화술로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잘못된 신념을 철저히 내려놓고 지금 내가 듣고만 있지만 지금 주님이 역사하셔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여시고 상처를 치유하고 아픔을 싸매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담은 듣기일 때, 주님은 상한 영혼의 깊은 마음자리에 들어가셔서 그곳에 웅크리고 울고 있는 내면의 어린아이를 품에 안으시고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만나시는 여러 사람들 중에 영적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말하기에 앞서 믿음의 고백을 담은 듣기를 실천해보시면 어떨까요? 상처 입어 울고 있던 한 영혼의 어린아이가 거듭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실 것입니다. **만남**





‘기도’, 하나님의 양육과 돌봄을 받는 길



김정희 목사
강북·도봉교구
자원봉사부, 영락기도대
베다니찬양대

기도는 그리스도인답게 성숙하게 하는 최선의 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개인적이고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쌍방의 대화를 할 수 있으며,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할 때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여 마침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그분의 뜻을 나타내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며,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기도는 우리의 고집을 변화시키며 우리가 경험하는 수많은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며,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회개하며 성숙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합니다. 이러한 면에서 본다면 기도는 신앙인을 신앙인답게 하고,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성숙하게 하는 최선의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염려하기보다는 기도

오늘도 살아 계신 하나님은 기도하는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을 그분의 섭리 가운데 이끌어 주시고, 때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미리 아시고 채워주

시며, 한 치 앞도 가늠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분의 사랑의 손길로 친히 양육하시며, 섬세한 손길로 세밀한 부분까지 돌보아 주십니다.

우리말의 ‘기도(祈禱)’라는 말은 한문에서 온, ‘빌기(祈)’, ‘빌 도(禱)’로 되어 있는데, 두 단어 모두 ‘~에게 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소원과 간구를 빈다’는 의미로 우리가 기도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을 보면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염려하기에 앞서 모든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 때 응답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종교개혁자 칼뱅은 말합니다. “기도는 믿음을 최상으로 실천하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 우리는 매일 은혜를 받는다. 기도는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교통이 있어야 하고, 하늘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 하늘 창고에 저장해두신 보화에 우리의 손이 닿으려면 기도의 힘을 빌려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하나님은 게으른 우리를 훈련시켜서 그분을 찾고 간구하여 큰 유익을 얻게 하기 위해 기도를 명하셨다. 하나님을 항상 찾으며 사랑하고 섬기겠다는 소원과 열의가 우리의 마음 속에 불 일 듯 일어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기도를 명하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소원을 토로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늘의 아버지는 곤란한 상황에 있는 그의 백성을 도우시

고 길을 열어주시며, 그들은 구한 것을 얻고,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생각하고 더욱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된다.”

기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이자 우리의 호흡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은행에 아주 많은 돈을 맡겨 놓은 사람은 홍수에 집이 떠내려가도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은행에 맡겨 놓은 많은 돈보다도 크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바람을 잔잔케 하시며,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각종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 11:28)”라고 말씀하십니다.

조지 무러는 “염려의 시작은 신앙의 끝이며, 신앙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그분을 온전히 따르는 것이 염려를 떨쳐버리는 비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입니다. 마스터리가 있으면 모든 문을 열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또한 기도는 우리의 호흡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지 아니하면 죽는 것처럼 기도하지 아니하면 심령이 힘을 잃고 죽어갑니다. 현실은 막막하지만 기도하면 희망이 보입니다. 현실은 나의 눈으로 내 삶을 바라보는 것이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의 눈



으로 내 삶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던 것이 보입니다. 열리지 않던 것이 열립니다. 더 나은 미래의 모습이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기도는 최후의 방법이 아닌 최선의 방법

물론 우리는 기도가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는 기도를 최후의 방법으로 사용합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능히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행위가 기도입니다. 우리가 일할 때는 우리의 실력대로 일이 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실력대로 일이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결과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와

산성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박하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해야 합니다. 가나안 여자가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어 세상에서는 어찌할 수 없고, 주님의 도움이 아니면 해결 방법이 없어 간구했으며, 회당장야이로 딸이 죽게 되어 예수님께 나아와 간구했을 때 주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선택과 행동이 기도보다 앞서지 않도록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미 아십니다. 우리 주님은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도 아셨고, 베드로가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할 것도 아셨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아시고 우리의 사정도 다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다 아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과 살아 계심을 인정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선택과 행동이 기도보다 앞서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의 문제만을 바라보고 걱정하고 근심하기보다는 문제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분을 향한 간절한 시선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염려하기보다는 기도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참 평안과 형통함의 복을 받아 누리시는 영락의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남**

부모님부터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고등부 예배 자막 봉사자 우예인

매달 주님을 위해 영락을 섬기는
젊은이들을 만나보는 <영락 지금>!
이번 7월호에서는 영락교회의 미래
이자, 가장 많은 고민을 짊어질 시기
에 있는 우예인 학생을 만나봤습니
다. 곧 성인이 되는 학생의 입장에서,
교회에서 받은 은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교회에 바라는 것은 무엇인
지! 영락교회 젊은이의 생각이 궁금
하시다면 이번 호를 놓치지 마세요!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이고 영락교회 고등부에 출석하고 있는 우예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예인 학생은 영락교회에 어떻게 다니게 되었나요?

할머니, 할아버지를 비롯한 모든 친척들이 영락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현재까지 영락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현재 교회내에서 하고 있는 일이 있나요?

제가 출석하고 있는 고등부에는 총 아홉 개의 특별 활동 부서가 있는데, 그중 미디어부에서 1학년 때부터 봉사하고 있습니다. 1학년 때는 주로 예배 사진을 찍는 일을 했었고, 3학년인 지금은 방송실에서 예배 자막을 위해 섬기고 있습니다. 곧 고등부 홍보영상 제작에도 함께 참여할 예정입니다.

2학년 때 고등부 학생회장을 했다고 들었어요. 하게 된 계기나 이유가 있나요?

1학년을 마칠 때쯤 고등부 수련회를 갔을 때 조장을 맡았어요. 그 당시 수련회를 위해 준비하고 기도하던 학생회를 보며 나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고등부 선생님들과 주변 분들의 권유에 용기를 얻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고등부는 2학년이 학생회단을 꾸려서 한 학기씩 임기를 맡게 되는데, 저는 2학년 1학기에 학생회 총무를, 2학기에는 연임되어 학생회 회장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리로 섬겼었습니다.

학생회장일 때 겪었던 일 중에 나누고 싶은 경험이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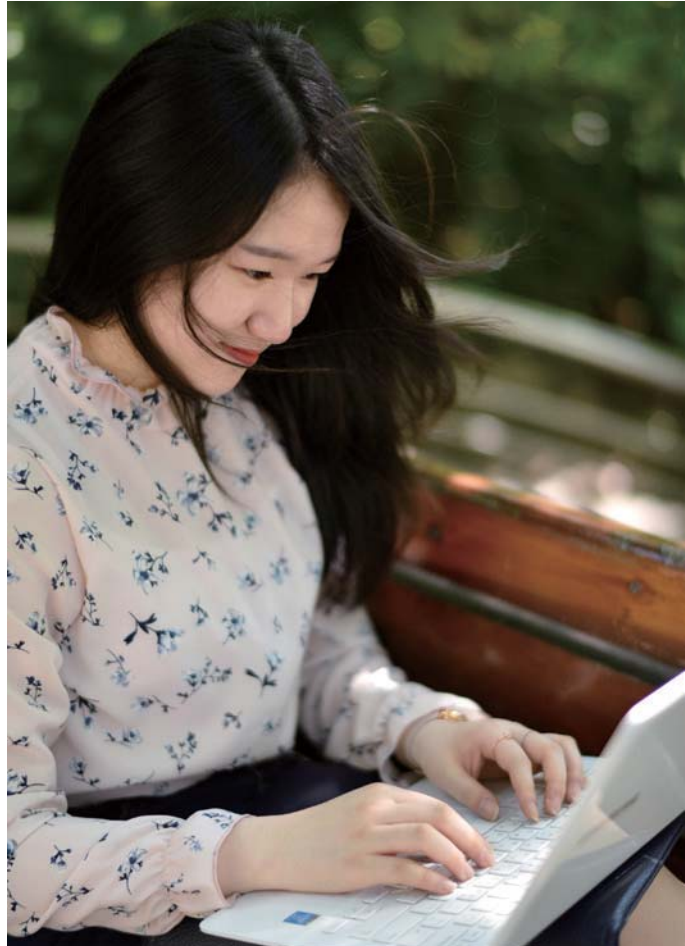
9월부터 수능이 있는 11월 중순까지 장기프로젝트를 진행했어요. ‘사도프로젝트’라고 하는데, ‘사도적인 삶의 원동력은 사랑이다’의 ‘사’, ‘예배의 자리로 함께 도착하자’의 ‘도’ 글자를 따서 ‘사도프로젝트’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중에 하나는 ‘손 글씨 캠페인’인데 자신에게 주제가 되는 말씀 구절을 손 글씨로 쓰고 친한 친구 3명을 태그해서 SNS에 올리는 활동이 있었어요.

10대 친구들에게는 SNS가 너무 일상적이라 누구나 어렵지 않게 참여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반응이 어땠나요?

예상 외로 반응이 좋았어요. 교회 친구들뿐만 아니라 학교, 학원 친구들과 SNS에서 서로 팔로잉만 되어 있다면 태그할 수 있거든요. 손 글씨 게시물을 올릴 때 교회에 다니지 않는 친한 친구들도 태그하면, 제가 쓴 말씀 손 글씨를 함께 공유할 수 있어서 그 친구들에게도 하나님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럼 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힘들었던 점은 없었나요?

사실 학생회 회장이라는 직책이 부담이었는데 고등부의 모든 선생님, 집사님, 권사님들이 알아봐 주시고 항상 먼저 다가와 주셔서 응원과 지도해 주셨던 게 기억에 남아요. 그 덕분에 임기를 잘 마칠 수 있었고 모든 시간들이 행복했어요. 평소에 학업과 학생회 활동을 병행하며 바쁜 저희 학생회끼리 아웃팅 활동으로 남산이나 한강도 가고 엠티도 갔었는데, 하루는 학생회를 지도해 주시는 대학생 선생님들이 다니는 대학교를 탐방해 봤는데 너무 좋았어요.



고등학생은 신앙에서 여러 질문을 갖게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예인 학생은 혹시 지금 고등학생으로서 가장 답을 얻고 싶은 신앙적인 의문이나 궁금증이 있나요?

하나님 안에서 계획하신 일로 여기며 뭔가를 해나갈 때 이것들을 맞게 하고 있는 건지 궁금할 때가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해도 응답이 안 오거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려고 하지만 어려울 때가 있더라고요.

요즘 세상에서 기독교에 대한 시선이 부정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해요. 예인 학생이 느끼기엔 어떤지, 이유가 있다면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요즘 들어 특히 기독교를 사칭하는 이단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의 영향으로 올바르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까지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또 세상 사람들의 인식에서 '신앙이 필수인가?'라는 생각들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럴수록 우리 기독교인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중심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요즘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의 숫자도 매년 줄고 있다고 해요. 청년의 입장에서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하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나요?

앞서 말씀드렸던 사도프로젝트 할 때 학부모를 대상으로 “내 자녀의 예배를 지켜주세요” 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어요. 50주년 기념관 앞마당에서 학부모들에게 공부와 신앙 중 어떤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스티커를 붙여달라고 했어요. 그래도 교회인데 당연히 ‘신앙’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과가 공부 쪽에 스티커가 더 많이 붙어 있는걸 보고 너무 놀랐어요. 사실 자녀가 교회에 첫발을 내딛게 되는 것은 대부분 교회를 출석하는 부모의 영향이 크다는 것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교육하고 올바른 곳으로 이끌고자 하는 학부모님부터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락교회의 젊은 구성원으로서, 교회에 바라는 부분이 있나요?

교회 밖의 세상은 서로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결과로써 평가받게 되어 있는데,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교회 내의 모든 사람들이 경쟁과 평가를 벗어나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뜻으로 한마음이 되면 좋겠어요.

앞으로 예인 학생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첫째로, 한 달에 한 번 고등부에서 ‘위닝기도회’가 열리는데, 앞으로 남은 기간도 다 참석하고자 합니다. 예배와 다르게 위닝기도회가 저에게는 쉬는 시간 같은 기도회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둘째로 미디어부에서 활동하면서 관심이 있었는데 지금은 확신이 생기면서 앞으로 방송기술 쪽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또 교회예배와 별도로 가족끼리 가정예배를 드리는 것과 나중에 교육부 교사가 되게 된다면 지금의 활동을 되살려 고등부 교사가 되어보고 싶고요. 고등부 내에서 해외선교가 1년에 한 번씩 있었는데 가지 못했어요. 기회가 되면 해외선교도 꼭 가보고 싶습니다. **만남**

기획 우대권 편집위원, 오승현·목진경 기자 사진 김태영 객원기자



다양한 윤리, 서로 다른 삶

우리는 2년 전에 발생했던 강남역 여성 살해 사건을 기억한다. 가해자는 남녀공용 화장실에서 남성은 그냥 보냈고, 자기도 전혀 모르는 사람인 한 여성을 살해했다. 지난 5월 17일, 강남역에는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해 폭우 속에서도 약 2천명이 모였다고 한다. 추모객들은 더 이상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어떤 폭력의 피해자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가해자가 무고한 한 여성을 살해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인간의 삶은 단순한 우연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이유에 근거하고 있다. 가해자는 여성으로부터 무시를 당했기 때문에 한 여성을 살해했다고 했다. 이 변명은 어느 정도 정당한 것일까? 일반적으로 의무론적 윤리에 의하면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살해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무시를 당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자신과 전혀 무관한 사람을 살해하지는 않는다. 여기에서 다양한 윤리적 삶의 형태를 보게 된다. 이번 호에서는 목적론적 윤리와 의무론적 윤리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기독교윤리의 입장을 살펴본다.



고재길 교수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와 문화

목적론적 윤리와 기독교윤리

목적론적 윤리는 인간의 삶이 목적에 따라서 구성된다고 주장한다. 목적론적 윤리는 다음의 질문-인간이 성취해야 하는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인가 - 을 중요하게 다룬다. 여기에서는 목적달성에 유익을 주는 인간의 행동이 선으로 규정된다. 이와는 달리 목적달성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인간의 행동은 악이 된다. 영국의 공리주의 철학자인 벤담(J. Bentham)은 목적론적 윤리를 강조하는 대표적인 학자이다. 그는 인간의 삶의 목적이 행복의 실현에 있다고 하면서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강조했다. 벤담은 인간이 성취해야 하는 가장 큰 목적을 행복이라고 보았고, 고통지수는 최대한 낮추고 행복지수는 최대한 높이는 데에서 행복을 찾았다. 벤담의 견해는 국가정책의 입안과정이나 정책의 실행과정에서 쉽게 볼 수 있다. 새로운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공동체의 유익과 행복을 강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목적론적 윤리는 소수의 의견을 간과하거나 무시할 가능성이 있고, 과정의 정당성을 가볍게 여기면서 결과의 실용성만 강조하는 위험에 빠질 수 있다. 기말고사 시험장에서 A학생이 부정행위로 고득점을 받고 장학금까지 받게 된다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 A학생이 목적을 달성했고, 행복을 맛보았다고 해서 그 행동을 선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목적론적 윤리를 어떻게 생각할까? 목적론적 윤리라는 용어가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이를 암시하는 성경 본문은 찾아볼 수 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셨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부르셨다(창 18:19). 사도 바울도 이 부분에서 의견을 같이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엡 2:10)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지향점은 의와 공도를 행하고 선한 일을 행하는 바로 그곳에서 잘 나타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목적론적 윤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처럼 목적 그 자체를 절대화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을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성취하는 선한 도구로 생각한다. 따라서 목적달성을 위한 악한 수단의 정당화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 가령, 아무리 많은 헌금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악한 방법으로 벌어들인 것이라면 하나님은 그 헌금을 받지 않을 것이다. 기독교윤리는 다음의 경우를 주의할 필요가 있다. 기독교윤리는 한 개인이나 또는 공동체를 위한 목적으로 시작한 일이긴 하지만 그 일로 인해 소외되거나 무시당하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

의무론적 윤리와 기독교윤리

의무론적 윤리는 인간의 삶의 기초를 형성하는 권위에 대해 질문한다. 권위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다음과 같다. “무엇이 가장 옳은 것인가?” 의무론적 윤리는 규범에 일치하는 행동을 옳은 것으로, 법을 위반하는 행동은 옳지 못한 것으로 판단한다. 여기에서는 규범과 법의 준수가 가장 중요하다. 목적론적 윤리는 옳음에 우선하는 좋음을 윤리적 기준으로 삼는다. 그러나 의무론적 윤리는 좋음에 우선하는 옳음을 행동의 동기로 이해한다. 목적론적 윤리는 과정의 정당성을 간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

점을 갖는다. 이러한 목적론적 윤리의 한계는 규범과 법의 준수를 강조하는 의무론적 윤리를 통해 보완될 수 있다. 장학금을 받으려고 부정행위를 한 학생과 부정한 돈으로 많은 헌금을 드린 교인의 행동은 모두 옳지 않다. 의무론적 윤리를 주장하는 대표적인 학자는 칸트(I. Kant)이다. 그의 의견에 의하면 도덕적으로 옳은 행동은 한 개인의 의지의 준칙이 보편적 입법의 원리와 일치할 때 가능하다. 이러한 칸트의 정언명령은 무질서와 혼돈의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장점을 갖고 있는 의무론적 윤리도 자신의 한계를 드러낼 때가 있다.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형식적인 법의 적용만을 강조할 경우, 의무론적 윤리는 생명력을 상실한 율법주의에 빠질 수 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의무론적 윤리를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성경은 의무론적 윤리의 지향점을 제시하고 있다. 모세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십계명(출 20:1-7)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켜야 하는 규범과 율법이다. 사도 바울의 서신도 하나님의 자녀가 실천해야 하는 의무를 언급하고 있다.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빛의 자녀들로서 빛의 열매(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를 맺고 살아가야 한다(엡 5:9). 주의해야 하는 일은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를 피하는 것이다. 법은 인간의 생명을 살리고, 생명의 가치를 실현하려고 만든 것이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도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을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시고, 율법의 정신을 회복시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비판했다. 법의 기본 정신을 망각했던 바리새인들처럼 우리들도 형식적 율법주의를 강조할 수 있다. 율법주의의 한계를 넘어서면서 옳음을 실천하는 기독교의 의무론적 윤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지금까지 필자는 인간의 삶을 이끌어가는 다양한 윤리의 유형을 살펴보았다. 어떤 사람들은 목적론적 윤리에 따라서 자신의 삶을 구성하고, 또 다른 이들은 의무론적 윤리의 기준에 근거하여 도덕적인 판단을 한다. 기독교 윤리는 목적론적 윤리의 내용과 의무론적 윤리의 주장을 비중 있게 다룬다. 중요한 것은 목적론적 윤리와 의무론적 윤리의 장단점을 잘 분석하고, 그것을 성경의 중심 내용과 기독교의 가치와 잘 연결시키는 작업이다. 모든 인간의 삶은 단순한 우연의 생산물이 아니라, 구체적인 윤리의 결과물이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 여정에서 기독교윤리는 결과만이 아니라 과정의 옳음을 강조해야 하고, 소수의 견해도 존중하는 미덕도 발휘해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과정에서도 생명을 살리고 삶의 풍성함을 맛볼 수 있어야 한다. 기독교윤리는 생명적 가치의 실현을 방해하는 경직된 율법주의를 넘어서야 한다. **만남**



누가 방황하는 청년들을 도울 것인가?

한때 우리나라 청년들의 고민은 매우 이념적이고 정치적이었습니다. 그때는 나라와 역사를 고민하는 청년들이 교회에 많이 찾아 왔는데, 1970-80년대가 그랬습니다. 그 뒤에는 이성 교제, 혼전 섹스, 취업 문제 등으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가정과 결혼, 직장 문제로 고민하는 청년들이 교회를 찾았는데, 1990-2000년 초기가 그랬습니다.

청년들의 고민

그러나 지금은 더 이상 그렇게 청년들이 교회를 찾아오지 않습니다. 고민이 줄어들거나 없어졌느냐고요? 아닙니다. 오히려 고민은 더 많아졌고 깊어졌습니다. “7포 세대(연애,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인간관계, 꿈, 희망을 포기한 세대)”, “방구석 여포(하루 종일 자기 방에서 게임, 영화, 야동에 중독된 사람들이나 ‘PC방’이 자기 집이 된 청년들)”란 말들은 청년들의 고민이 얼마나 깊은가를 잘 보여주고도 남습니다.



성인경 목사
라브리선교회 대표

성인경 목사: 라브리선교회 대표이며, 아내 박경옥과의 사이에 자녀 셋을 키웠으며, 30여 년간 청년들을 전도하며 그들의 멘토로 살았다.
저서: <대답은 있다>, <진리는 살아있다>, <청년 연가>(박경옥과 공저), <나의 세계관 뒤집기>

사실 세계 어디를 가나 청년들의 고민은 마찬가지입니다. 우울증, 나쁜 성질, 동성애, 인권, 인간관계, 시대 차이, 신분 갈등... 이런 것들은 밀레니엄 세대의 국제적인 고민입니다. 그러나 3000년 전의 솔로몬 시대의 청년들의 방향과 얼마나 다를까요?

“어리석은 자(바보) 같은 젊은이 가운데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그 때에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의 호리는 말로 꾀므로,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잠언 7:7-23)”.

어제나 오늘이나 청년들의 고민은 한마디로 ‘정체성(正體性, identity)의 혼란’이며, 그 내용은 주로 세 가지입니다. 자신의 개인적 성격성의 기초 붕괴, 지식적인 통일성의 부재, 도덕적 딜레마에 대한 고민입니다. 이런 세 가지 고민은 우리 시대를 사는 청년들만의 유별난 고민만이 아니라, 알고 보면 전 세대들의 아픔이었고, 미래 세대들의 예비된 방향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청년들이 이런 정체성 혼란의 수렁 속으로 끌려 들어가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라브리공동체를 세운 프란시스 쉐퍼(Francis A. Schaeffer)의 지론을 따라 세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청년들이 정체성 혼란의 수렁으로 끌려가는 원인

첫째, 현대 사회가 전 방위적으로 비인간화를 조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태까지는 주로 교육 구조, 경제 시스템, 여론 정치가 그렇게 했지만, 요즘은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까지 청년들을 하나의 데이터, 즉 도구, 물건, 소유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인격이 설 자리가 없어지고 있으며, 인생이란 부조리하고 냉소적인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갖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둘째, 가치관과 진리관에 근본적인 변화가 생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것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상대적이거나 주관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성 대신에 느낌이, 패러다임(paradigm) 대신에 기득권이 세상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식의 통일성이 사라지고, 가치판단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혹은 마음 가는 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셋째, 심리학이나 사회학이 인간의 딜레마를 해결하기보다 더 비참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는 창조주 하나님과 그가 세운 질서에 대한 죄와 불순종의 문제이지, 심리적 딜레마나 사회적인 불평등이나 성차별 등이 아닙니다. 그러나 청년들의 문제가 마치 ‘금수저’, ‘흙수저’ 등 사회심리학적 문제라고 착각하도록 조작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해답이지 침묵, 힐링, 무아지경 체험이 해답이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의 손길

그러면 기독교는 방황하는 청년들의 정체성 회복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특별한 대안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이기도 하고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장점으로 세 가지 대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당신이 사랑하고 위로하고 친구가 되어 주면 소통의 접촉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방황하는 청년들을 만날 때 ‘거룩한 분노’가 끓어오릅니까? 때로는 같이 화를 내기도 하고 때로는 같이 울면서, 먼저 마음의 상처를 싸매고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만약 따뜻한 차 한 잔이나 밥 한 그릇으로 마음의 상처를 조금이라도 치료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일하는 라브리공동체를 찾아 왔던 한 법대생이 보낸 작은 엽서의 내용입니다. “간사님들과 아이들이랑 화분에 꽃을 심고 물을 같이 준 경험이 제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30대가 되도록 꽃 한 포기 가꾸어 보지 못한 삭막하고 메마른 세상에서 살아온 그에게 필요했던 것은 꽃이 아니라 가족이고 친구고 형제였습니다. ‘돌아온 탕자’,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는 사랑과 위로 그리고 친구가 되어 주라는 말씀이 아닐까요?

둘째, 당신이 정직한 질문에 정직한 대답을 해주면 기독교에 지적 패러다임이 있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청년들은 매일 ‘거짓을 택할 것인가 진리를 택할 것인가’ 하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그들에게 양심과 진리에 반하게 행동하는 것은 안전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결코 스마트한 일도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진리와 양심을 위해 “제가 여기에 섰습니다(Here I stand)”라고 외칠 수 있는 용기를 보이도록 설득해야 합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도 조용히 살던 사람이었으나, 1521년 4월 17일 독일 보름스 회의장에서 카를 5세 황제와 수많은 영주들 그리고 레오 10세 교황으로부터 “모든 주장을 철회하라.”는 명령에 대해 무조건 순종하는 여러 명의 추기경 앞에 혼자 섰습니다. 그는 양심과 진리를 택했고, 죽을 줄 알았으나 영원히 살았습니다. 그때 루터는 37살이었고 총각이었습니다. 한때 방황하던 청년들도 얼마든지 루터와 같은 용기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좋겠지요?

셋째, 당신이 머리를 숙이고 섬기면 교회와 기독교인이 욕먹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지저분한 타락, 목회

자들의 부패, 성도들의 부도덕, 기독교 청년들의 혼전 섹스와 거짓말, 인간들의 죄악 등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밖에 없습니다. 지금 유행하는 적폐청산도 아니고, 정권교체도 아니고, 금수저 은수저라는 신분 차이도 아니고 남북통일도 아닙니다. 그것은 표면적 해결에 불과하며 내면적, 전면적 해결은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밖에 대안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길은 기독교인들이 본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이란 아름다운 호칭에 걸맞게 사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지방색, 학벌 차별 등을 없애고, 속칭 “성골”, “진골”들이 고개를 숙이고, 나그네와 과부들이 고개를 들 수 있는 서로 섬기는 교회를 만들어 주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의 영적 연합이 얼마나 신비롭고도 인격적인가를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향기롭고 아름다운 삶 자체가 최고의 대안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장 어려운 대안이라는 것을 저는 누구보다 잘 압니다. **만남**

선교사는 무엇으로 사는가?



김춘자 선교사
필리핀



선교지 사람들의 변화, 세례식 마치고

친구가 되고 나서야 사역이 보이기 시작

문화와 환경이 다른 선교지에서 적응하는 것은 선교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그들을 진정으로 이해하게 될 때 비로소 경계심이나 적대감이 사라지고 친구가 되기 때문이다. 선교지에 적응하고, 친구가 되고 나서야 비로소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사역이 보이기 시작하며 사역이 보여야 진정한 사역을 잘 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돌이켜 보면 선교지에 막 도착해서 선교지의 문화나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복음전파가 선교에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불타는 열정만으로 복음전파에만 집중했다. 그러다 보니 좌충우돌 하면서 사람들의 반응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오해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기도 했다. 물론 선교사로서 헌신한 기쁨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런데 적지 않은 세월이 흐르다 보니 이제는 눈썹을 치켜들며 고개를 약간 뒤로 젖히면서 인사를 나누는 사람들, 가끔은 나보다 나이가 어리거나 많은 사람이 어깨에 손을 얹으며 친구라고 소개하는 모습을 볼 때 예의 없다고 생각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겹게 느껴진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이 부족한 나를 어느새 그들은 '영적 어머니'라 불러준다. 이제 이들을 두고 어디로 갈 수 있을까?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받고 있는 나는 행복한 선교사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들

그동안 세계선교신학교를 세워 목회자를 양성하며,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사를 훈련시키고 캠퍼스 사역을 감당해 왔다. 어느 정도 헌신된 목회자들도 배출하고 있고, 그들과 함께 교회개척도 힘차게 하고 있으며, 캠퍼스 사역을 통해 젊은이들을 훈련시키는 사역도 하고 있다. 나아가 이 땅의 복음화뿐만 아니라 아시아와 세계선교에 이바지하려는 더 큰 비전을 갖고 있다. 이를 위해 유치원, 초등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세워 신학

교와 함께 교육사역을 통해 헌신된 신실한 일꾼들을 배출하려고 한다. 이미 부지도 마련했고 이제는 개교할 적당한 시기와 교사건축, 법적 절차 등을 놓고 기도하며 준비 중에 있다.

교육사역에 대한 비전을 놓고 오랫동안 기도해 왔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셔서 2016년 말에 1.6ha의 땅을 공급해 주셨다. 그러나 교사 건축도 필요하고, 학생들은 어떻게 모집하며... 이런저런 염려가 생겼다. 그런데 기도하던 중 또 한번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었다. 그렇게 기도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 부지 옆에 어느 건축회사에서 2500세대의 주택단지 개발을 시작하게 되었고 지금 모델하우스 분양 중이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들이다.

선교지 사람들의 변화

어찌 이뿐이라, 27년의 세월을 선교사로 살다 보니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그 중을 돌보시는 하나님...’ 다 열거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 앞에 스스로 겸허할 수밖에 없고 이 모두 “주님께서 다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 그저 자랑할 것도 없고 다만 위대한 하나님의 선교에 조금이나마 쓰임 받는 것이 감사할 뿐이다. 이곳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고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변화를 지켜보며 그들과 더불어 사는 것이 그 무엇보다 행복하다. 선교사는 어떤 업적을 이루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으로 선교지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것임을 새삼 깨닫게 된



예배 후 모습. 왼쪽 첫번째 김춘자 선교사, 두번째 테스 집사

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변함없이 이곳에 머물 수 있었던 것도, 이들을 위해 사랑의 수고를 즐겁게 할 수 있는 것도, 앞으로도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있어도 선교사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선교의 성과가 아니라 선교지 사람들의 변화를 보면서 일 것이다.

테스라고 하는 어느 여집사와 그녀 가정의 변화

테스라고 하는 우리 교회 여집사님이 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본격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 후 몇 년 동안 결석한 것은 손에 꼽을 정도이고 여러 예배와 사역에 열심을 다하는 참으로 보배로운 자매이다. 특별히 제자훈련을 잘 받아서 교회 지도자로서 소그룹 성경공부 모임과 기도회도 인도하며 심방도 잘 감당하는, 교회와 내게 큰 힘이 되는 집사이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던 그녀에게 어느 날 생각지도 않은 불행이 찾아왔다. 병원에서 검진을 받아도 특별한 병명이 없이 시름시름 앓았다. 그렇잖아도 마른 체격인데 체중이 40kg 미만으로 내려갔고 바깥출입도 못 하게 되었다. 급기야 교회에도 나올 수 없게 되었다.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며 매일같이 심방을 가서 말씀을 나누곤 하였다. 그



5월 22일 세계선교신학교 22회 졸업식

러던 어느 날 기도하던 중 비몽사몽간에 자매가 천국으로 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당시 그 자매가 교회의 회계 집사를 하고 있었고 그 가정에도 꼭 필요한 때여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다. “하나님 그 집사님을 살려 주세요. 아직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아직 그녀가 필요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셨고 그녀를 깨끗하게 낳게 해 주셔서 지금까지 집사로서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에서 섬기며 봉사하고 있다. 더욱이 WMS(세계선교대학)에서 평신도 지도자 과정 2년도 공부하고 평신도 사역자로서 교회 리더 역할을 잘 감당해 주고 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지난날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를 치료하시고 함께 해 주셨는지 간증하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집사님의 전도로 여러 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초등학교 교사인 딸도 주님을 만나 변화되어 주일학교 교사로, 청년리더로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다. 시청 직원이며 술꾼에 불신자요 핍박자인 그녀의 남편은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지만 자기 아내가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동안 차로 학교까지 데려다 주는 수고를 했던 것을 보면 때가 가까워오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뜨거웠던 한국 교회가 그리워지는 수많은 사람들의 변화

비단 테스 집사님의 경우만이 아니라 이곳 선교지에 예수 믿고 변화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부모의 반대와 가정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소명을 따라 신학교에 와서 공부하고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된 사람들, 매주 토요일과 주일 오후 전도대에 합류해서 전도하는 꿈 많은 청소년들, 언젠가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선교의 빛을 갠다는 젊은이들...

이처럼 예수 믿고 변화되어 삶의 목적을 복음증거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면 70-80년대 나의 청년시절이 생각나고 뜨거웠던 한국 교회가 그리워진다. 그럴 때면 선교지에서 사역을 하며 겪었던 모든 아픔과 어려움들이 한 순간 다 사라져 버리고 선교사로 살아가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릴 뿐이다. 이곳 사람들을 품고 울기도 하고 웃을 수도 있어서 감사하고, 작은 희생이라도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열매가 있어서 감사하고, 열매가 미약해도 감사하다.

선교지 사람들의 변화가 곧 선교사의 존재 의미

그렇다. 눈에 보이는 크고 중대한 일이나 업적이 될 만한 일을 이루었을 때보다도 선교지에서 만난 사람들의 변화야말로 선교사에게 더 큰 존재의 의미를 느끼게 해주고 사역의 기쁨을 누리게 한다. 그리고 다시 마음에 새기게 된다. 이름과 빛이 없어도 선교지 하늘 아래서 이 땅의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리라, 주님 오실 때까지. **안남**

‘직장선교’에서 ‘직장사역’으로



방선기 목사
직장사역연합 대표

나는 대학 졸업 후 직장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았고 또 직장 내에서 전도도 했다. 그러다가 내게는 엔지니어가 맞지 않는 것 같아 그 일을 그만 두고 목회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 신학공부를 끝내고 기독교 기관에서 일하다가 이랜드라는 기독교 기업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 사역을 하면서 ‘직장사역’이란 말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그 이전에는 ‘직장사역’보다는 ‘직장선교’란 말이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다. 지금까지도 ‘직장선교’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왜 그런 용어를 사용해 왔는지를 살펴보고 새롭게 ‘직장사역’의 의미를 나누고자 한다.

1. 직장선교의 역사

직장선교는 주로 직장인들이 직장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나 기업인들이 목사님을 모시고 직장 내에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이해했다. 사실 그 당시 그런 시도는 혁명적인 것이었다. 예배는 교회에서만 드리는 것으로 알았는데 세속적인 직장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한편으로 가슴 뛰는 일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선교라고 할 수 없었다. 믿는 사람들끼리 드리는 예배나 전 직원이 함께 드리는 예배라도 비신자들이 원하지 않는 예배는 직장 내 비신자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직장선교에 아쉬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직장선교를 직장 내에서 복음을 전하는 활동으로 이해하게 되면서 그 사역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나타났고, 이들은 주로 학생선교단체에서 영향을 받아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는데 익숙해진 사람들이었다. 그것은 훨씬 진일보한 것으로 선교란 말을 사용할 만하였는데, 이는 전통적으로 선교란 복음을 전하는 전도가 핵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역시 직장이라는 특성은 고려하지 않고 단지 직장을 전도의 현장으로만 이해한다는 아쉬움이 있었다.

직장선교를 이렇게 이해하게 된 것은 전통적인 복음주의가 갖는 신학적 한계를 보여준다. 전통적인 복음주의 사고의 핵심에는 구원론이 자리 잡고 있으며, 이 세상은 죄악 세상이므로 이 세상에 사는 죄인들을 구원하는 것만이 선교라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선교는 전도와 교회개척으로 제한해서 생각하였으며, 전도하거나 예배드리는 것이 선교의 전부가 되었다.

하지만, 1974년 로잔언약이 발표된 이후 복음주의에서는 선교를 좀 더 넓게 생각하게 되었다. 그것을 총체적인 선교(Holistic Mission)라고 부르며, 로잔언약에서 교회의 사명은 전도와 사회참여의 이중적인 면을 강조하게 되었다.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가 선교의 핵심인 것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죄악으로 얼룩진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갖도록 만들어가는 것 역시 선교의 한 부분이 된다는 것을 보완한 것이다.

이런 총체적인 선교 정신에 입각해서 직장선교를 바라보면 직장에서 하는 일과 직장생활 자체가 중요한 선교의 영역이 된다. 직장은 전도하기 위한 현장이기 전에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을 하는 현장이며, 크리스천은 직장에서 맡겨진 일을 하나님의 일처럼 하면서 그 속에서 삶을 통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전도는 이렇게 일하며 사는 크리스천에게서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열매가 되어야 하고, 이것을 전통적인 ‘직장선교’와 구별하기 위해서 ‘직장사역(Workplace Ministry)’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2. 직장사역의 현실

직장사역(혹은 우리말로 일터사역)은 “직장(일터)에 있는 크리스천들이 성경적인 직업관을 가지고 일하면서 일터에서의 삶을 통해서 신앙을 드러내며 일터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역”으로 정의할 수 있다. 사역을 이렇게 정의하려면 믿음의 관점에서 교회와 일터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이나 직장의 일과 전도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교회는 거룩한 곳이지만 세상은 특히, 세속일터는 속된 곳이라는 이원론을 벗어버려야 한다. 거룩함의 여부는 종교적인 곳인가 아닌가에 달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어떤 곳이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은 거룩한 곳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이 호렙산에 있는 모세를 향해서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셨는데(출3:5) 이 말씀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속사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얼마든지 거룩한 곳이 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직장사역은 직장을 전도의 현장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만 한다면 직장도 얼마든지 거룩한 곳이 될 수 있다고 믿고 그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는 교회와 관련된 종교적인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였다면 직장에서 맡겨진 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만물을 다스리는 일을 맡기셨는데(창1:28), 사람들은 자기 직업을 통해서 그 명령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사람들의 직업은 바로 하나님이 명하신 일, 즉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육신의 상전을 섬기는 일을 하는 노예들에게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십시오.”(골3:23) 라고 권면하였다. 노예들이 하는 일이 주님의 일이 될 수 있다면 오늘날 세상에서 하는 일들도 주님께 하듯 한다면 주님의 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직장사역은 세상에서 맡겨진 일(Work)을 하나님이 주신 소명(Calling)으로 받아 일터에서 크리스천의 정체성(Identity)을 가지고 신실하게(Integrity) 살면서 거룩한 영향력(Influence)을 미치는 것이다. 이것을 바탕으로 일터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Evangelism) 그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것(Discipling)이 직장사역의 열매라고 할 수 있다.

직장사역은 이 세상의 직장에서 일하는 크리스천이라면 누구나 담당해야 할 중요한 사역이다. 일반 직장인들에게는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하면서 삶의 모범을 보이는 것이 사역의 시작이 된다. 그런 삶을 통해서 관계를 맺게 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이는 사역의 열매라고 할 수 있다. 자영업자나 기업인들에게 직장사역(일터사역)은 기업을 경영하는데 있어 먼저 기독



교 정신을 드러내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정직하게 경영해서 세상과는 구별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사역이 될 수 있다. 누구나 돈에 집착하기 쉬운데 돈보다는 일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고 일보다 그 일을 함께 하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는 것 역시 중요한 사역이 된다. 경영하는 과정에서 접촉하게 되는 사람들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사역의 대상은 피고용인들이다.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격적으로 대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직장사역의 열매를 맺게 된다.

직장사역은 직장인이든 기업인이든 목회자가 아닌 성도들의 사역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일차적으로는 그렇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목회자의 역할이 성도들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도록 돕는 것이라면 성도들의 직장사역은 목회자들의 몫이기도 하다. 목회자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들이 직장에서 경험하는 어려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고민을 풀어주는 일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목회사역이 아닐까 생각된다. 지금까지는 예배당에 모이는 교회만을 교회라고 생각했는데 평일에 흠어져 있는 성도들을 흠어진 교회로 이해하는 교회관의 변화도 필요하다.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세상에 흠어져서 일하는 곳에서 빛이 되고 선한 행실을 보여줄 때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마5:16)

3. 직장사역의 미래

직장사역은 선교지에서 이루어지는 직업선교/전문인선교(Tentmaking Mission)나 기업선교(Business as Mission)를 위해서 필수적인 준비가 될 수 있다. 직장사역을 경험한 사람들이 기회가 주어져 타문화권에서 일하게 된다면, 그는 전통적인 선교사와는 다른 의미의 선교사역을 담당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데렉크리스텐슨이라는 선교학자는 직장사역자가 비자(visa)와 비행기표를 가질 때 직업선교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직업 선교를 너무 단순하게 정의한 것 같지만 의미 있는 말이다.

현재 세계 여러 곳에서 다양한 형태의 직업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국내에서 직장사역에 대한 이해나 경험이 부족하다면 직업 선교를 효과적으로 이루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선교 비전이 있는 젊은이들이 당장 직장을 그만 두고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된 후 세계 선교를 위해 헌신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직장에서 피고용인으로 일하면서 혹은 창업을 해서 기업경영을 하면서 직장사역의 경험을 쌓는다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세계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만남**

▶ 상영 장소 및 시간 : 50주년기념관 지하1층 소강당, 주일 오후3시



바라바 (Barabbas, 1962)

감독 : 리처드 플레이서

주연 : 안소니 퀸, 아서 케네디, 실바나 망가노, 잭 펠런스

장르 : 드라마 상영시간 : 2시간 24분 등급 : 전체 관람가

예수 대신 풀려난 도적 바라바의 삶은 어땠을까? 바라바는 도적질과 폭력으로 가득했던 예전의 삶으로 돌아갔지만, 그가 사랑했던 창녀 라헬은 예수를 영접하고 돌에 맞아 죽는다. 바라바는 다시 체포되어 평생 광산 노역을 선고받는다. 바라바는 검투사가 되고, 더욱 큰 시련에 부딪힌다. 바라바 역을 맡은 안소니 퀸의 연기가 볼 만하다.

(하)1일



8일

프리 윌리 4

(Free Willy: Escape from Pirate's Cove, 2010)

감독 : 윌 게이저

주연 : 보 브리지스, 빈디 어윈

상영시간 : 1시간 40분 등급 : 전체 관람가

사랑스런 꼬마 숙녀 키타는 여름을 맞아 고향 호주를 떠나 남아프리카의 할아버지를 방문한다. 바닷가 근처에서 다 쓰러져가는 놀이공원을 운영하고 있는 할아버지 거스 그리스비와 손녀딸 키타의 여름은 돌고래 윌리를 만나면서 새롭게 펼쳐진다.



올리버 (Oliver!, 1968)

감독 : 캐롤 리드

주연 : 마크 레스터, 론 무디, 샤니 윌리스, 올리버 리드, 해리 세콤비

상영시간 : 2시간 33분 등급 : 전체 관람가

고아소년 올리버는 구빈원에서 죽 한 그릇을 더 달라고 요구했다가 장의사에게 팔린다.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은 올리버는 결국 그곳을 도망쳐 나와 런던으로 가지만 소매치기 일당에 합류한다. 찰스 디킨스의 원작을 아름다운 노래와 멋진 춤으로 풀어낸 뮤지컬 드라마.

(상)15일 (하)22일



29일

7번방의 선물 (Miracle in Cell No.7, 2012)

감독 : 이환경

주연 : 류승룡, 박신혜, 갈소원, 오달수, 박원상, 김정태, 정만식, 김기천

상영시간 : 2시간 7분 등급 : 15세이상관람가

범죄자들이 모인 교도소 7번방에 이상한 사람이 들어왔다. 6살 지능의 딸바보 용구는 초등학교 살인혐의로 사형선고를 받은 인물. 감옥 바깥에 혼자남은 딸 예승이를 감방으로 몰래 불러들여 아빠 용구와 만나게 하는 이야기는 한편의 팬터지다.



모처럼의 휴가와 여유가 허락되는 여름. 우리교회에는 기독교 특성화 도서관인 한경직목사기념도서관을 비롯해 교육부 도서관, 권사회 작은도서관 등 크고 작은 도서관이 있습니다. 올 여름, 우리 영혼을 살지게 할 독서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책과 함께 떠나는 여름 휴가



이규정 목사
영락기도원

흔히 가을을 독서의 계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름과 독서를 연관시키면 어딘가 모르게 어색하게 느낍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 아시지요?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

안중근 의사의 서예로도 유명한 이 글은, 독서를 통해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마음에 가시가 돋아나나도 상처를 입고, 가시 돋친 나의 말이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를 준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하루라도’라는 말을 통해 책은 계절에 상관없이 항상 읽어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이 말의 뜻을 교훈 삼아 무더운 여름 우리의 영성을 성장시키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책 4권을 소개합니다. 자연에서 열매 맺는 식물들을 살펴보면 봄에 싹을 틔우고, 여름에 자라나며, 가을에 열매를 맺고, 겨울에는 안식한다고 합니다. 여름에 식물이 가장 많이 성장하는 것처럼 이 책들이 여러분의 영적 성장을 돕는 귀한 자양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소개하는 책들은 한경직목사기념도서관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1. 언어의 온도/이기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잠언 15:4)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에베소서 4:29)

성경은 말에 대한 중요성을 늘 강조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천지 창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으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 역시 말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말을 조심해서 사용하라고 권면합니다. 제가 이 책에 관심을 가지고 읽었던 이유 역시 잘못된 언어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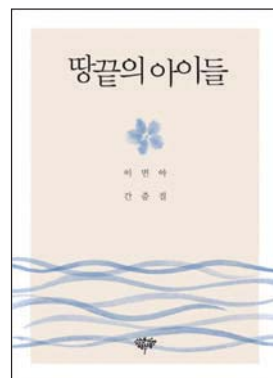
용을 반성하고, 많은 사람에게 덕을 세우는 언어생활을 하고 싶은 마음에서입니다. (이 책은 지난해 한경직목사기념도서관 일반도서 대출 3위이기도 합니다). 이 책은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를 언어 사용과 연관 지어 설명합니다. 차가운 표현으로 관계가 위태롭게 되기도 하며, 따뜻한 말 한마디로 얼었던 관계가 녹기도 하고 위로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작가는 가족, 친구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이웃과의 대화와 언어를 통해 우리가 놓치고 있는 소중한 것들을 다시금 일깨워 줍니다. 언어의 온도라는 책을 통해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고, 언어의 온도를 따뜻하게 하여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언어에는 나름의 온도가 있습니다. 따뜻함과 차가움의 정도가 저마다 다릅니다. 온기 있는 언어는 슬픔을 감싸 안아줍니다. 세상살이에 지칠 때 어떤 이는 친구와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고민을 털어내고, 어떤 이는 책을 읽으며 작가가 건네는 문장에서 위안을 얻습니다. (중략) 여러분의 언어 온도는 몇 도쯤 될까요?”

- 본문 중

2. 땅끝의 아이들/이민아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욥기 42:5-6)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베드로전서 1:22)



이 책은 지독한 이성주의자였던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을 영성의 길로 인도한 딸, 이민아 목사의 신앙 간증집입니다. 유명하지만 너무 바쁜 아버지에게서 사랑을 느끼지 못했던 어린 시절, 이화여자대학교 조기 졸업과 결혼, 미국에서의 이민 생활, 변호사 자격 취득 후 캘리포니아 주 검사로 임용돼 청소년 범죄 예방 및 선도하는 검사 생활, 그리고 이혼과 발병, 둘째 아이의 장애, 첫 아이의 사망 등 온갖 시련과 시험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 이민아 목사는 자신의 놀라운 영적 체험과 깨달음,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 끝까지 전하는 사역자의 모습을 전합니다. 이 목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다면 아이들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땅끝의 아이들.’” 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전하고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저는 그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누구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으면 땅끝에 선 아이들일 수밖에 없다고요. 세속적인 부기와 영화를 누리는 사람도, 나이가 든 가장도, 삶의 황혼에 접어든 노인도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이상에는 땅끝에 서서 벼랑으로 내몰린 아이들과 같은 것입니다. 저는 이 책 속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 본문 중

3. 두려움에서 사랑으로/헨리 나우웬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시편 23:1)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요한복음 8:32)

저는 이 책을 읽고 영성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영성이라 하면 방언, 예언, 치유, 환상과 같은 성령의 은사를 떠올리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신학교에서 영성 수업을 하는 동안 영성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고, 이 책을 통해 영성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역시 이 책을 통해 영성의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에서 사랑으로’ 제목처럼, 이 책은 불안과 염려의 내면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를 향한 헨리 나우웬의 성경적 위로와 권면을 담고 있습니다.

영성 계발이란 자신을 비우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 인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점차 계발되는 것, 제자로 부름받는 것, 즉 영성 계발은 곧 마음의 계발임을 말합니다. 이 책은 불투명, 망상, 슬픔, 원망, 두려움, 배척, 부정 등 인간이 경험하는 부정적인 마음의 상태를 하나씩 파고들면서 하나님과 더 깊은 만남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영락교회 성도라면 누구든지 영락 수련원에서 영성 수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책을 읽고 가신다면 여러분의 영성 수련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도는 두려움에 찬 세상에서 불안 대신 사랑을 선택하고, 마음 문을 열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의 친밀한 임재 안에 거하는 방법이다. 더 이상 두려움 속에 살 필요가 없다. 사랑은 두려움보다 강하다.”

- 본문 중

4. 나의 감사/한경직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시편 116:12)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데살로니가전서 5:16-18)



이 책을 접한 것은 영락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하면서입니다. ‘나의 감사’라는 책을 통해 한경직 목사의 신앙의 근본이 하나님께 감사임을 알게 되었고, 저 역시 목사님의 신앙을 닮기를 소원하며 이 책을 통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책은 한 목사께서 80세의 나이에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간증으로 이루어진 책입니다. 일제 강점기부터 한국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암울했던 시기를 온몸으로 살아오신 목사님의 시대적 사명과 고민, 교회와 나라를 위한 헌신, 이웃 사랑의 실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바쁘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알려주는 좋은 길잡이가 되어 줄 것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젊어서는 미래에 살고 중년에는 현재에 살고 노년에는 과거에 산다”는 말이 있다. 나이가 많아지니 과연 과거를 더 많이 생각하게 된다. 더구나 이 세상에서 살날이 별로 남지 않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할 때면 자주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게 된다. 나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떠오르는 말이 ‘감사’였다.” - 본문 중 **만남**



올 여름 방학엔 시편, 잠언, 주기도문을 읽어 봅시다



이사도 전도사
고등부 교육행정 담당

이제 여름방학입니다. 유치원생, 초등학생부터 중·고등학생, 대학생까지 모두 모처럼 여유 있는 시간을 기대합니다. 물론 중·고등학생들은 입시 준비로 더 바쁜 시간이 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독서할 수 있다는 것이 큰 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올 여름 그 은혜를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들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알게 하셨습니다. 세상이 아름답다는 것은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마음이 아름답고 섬세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통해 아름다움을 표현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신 말씀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둘째 날을 빼고는 하루하루 창조를 마무리 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좋았더라”는 말씀을 셋째 날에는 두 번 하셨기 때문에 모두 여섯 번이나 하신 것입니다. 자연과 인간, 이 모든 것들을 다 완성하신 후에는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아름다운 언어를 사용하셔서 표현하신 하나님께서는 또한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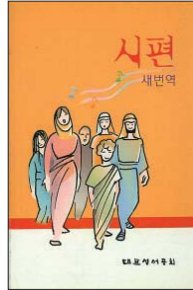
들에게 언어를 주셨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은 66권의 책으로 완성시켜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책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큰 선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을 주신 것은 인간에게 문자를 허락하신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책들이 출간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 많은 책들을 다 읽을 수가 없습니다. 좋은 책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데, 어떤 책들을 선택하여 읽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과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좋은 책들을 골라서 읽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올 여름, 우리가 함께 읽고 싶은 책을 몇 권 소개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성경들이 다 우리에게 소중한 진리들을 선물로 주시지만, 올 여름 잠언과 시편을 꼭 읽어 보시기를 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는 사람은 그 안에서 사랑, 정의, 인내, 겸손, 지혜, 내려놓음을 배울 수 있으며,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배울 수 있고, 이 땅을 살아가는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여러 방식까지 다 배울 수가 있습니다.

시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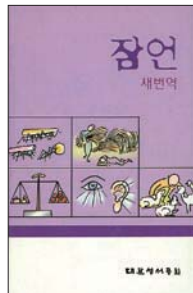
시편에는 여러 사람들이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겪었던 파란만장한 경험들이 다양한 시로 녹아 있습니다. 그 안에는 승리의 기쁨도 있고, 배신의 아픔도 있고, 고통의 탄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가슴을 찢는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갈망과 기대도 함께 나타나 있습니다. 시편을 한 편 한 편 읽어 가다 보면 우리도 그 안에서 위로를 얻을 수 있고, 답답한 마음의 치유도 체험할 수 있으며, 힘든 내 삶 속의 수많은 아픔들을 뛰어 넘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잠언

잠언은 솔로몬왕의 기록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한 사람의 삶의 과정 안에서 체험한 다양한 지혜들을 잘 담게 하셨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에게 매우 유익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그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잠언에는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지혜를 주실 것이라는 암시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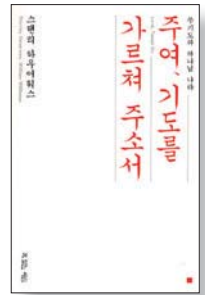
잠언과 시편을 읽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꼭 이



렇게 기도하며 말씀을 읽어가기 권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말씀을 제가 읽을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읽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알 수 있도록 안내해주시길 것입니다.

주여,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 /스탠리 하우어워스

이 책은 주기도문(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의 의미를 깊이 있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쳐주시길 때,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기도를 가르쳐주셨습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가르쳐주셨습니다. 과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을까요? 하우어워스는 그러한 의문을 던지면서 주기도문의 뜻을 해석해 가고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에 대해 보다 더 균형감 있는 자세를 가져볼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신 하나님 나라가 함축적으로 담겨 있는 기도의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만남**





한경직목사기념도서관 200% 활용하기

우리 교회의 명소인 '한경직목사기념도서관'은 봉사관 옆 한경직목사기념관 3-4층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의 뜻을 기리기 위해 한경직목사기념사업회의 사업 일환으로 예전에 사택이 있던 자리에 세웠습니다. 전문도서관이 대중화되기 전인 1970 년대에 신학전문도서관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교회 성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 수많은 분의 사랑을 받아온 도서관은 2017년 9월 기독교 특성화 도서관 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한경직목사기념도서관 개관시간 및 관외 대출 규정 (월요일과 공휴일 휴관)

요일	개관시간	대출규정			
주일	8시~17시	신분	대출권수	기간	대출연장 1회(7일) 연체 시 대출정지(연체일×2)
화~금	9시~17시	교역자	7권	21일	
토	9시~12시	교인·중구민	4권	14일	

2017년 환경직목사기념도서관 도서대출 Top 20

기독교 도서 20

순위	제 목
1	오스왈드 챔버스의 산상수훈
2	당신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3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칼뱅의 시편 119편 설교 로이드 존스의 요한일서 강해
6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7	내면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 골로새서 강해 (개역개정) NLT 한영해설성경 Cornerstone Biblical Commentary, 11
11	팀 켈러의 내가 만든 신 팀 켈러, 하나님을 말하다 깊은 기도를 경험하라 하나님 음성에 응답하는 삶
15	메시지 구약 모험이 답이다 주님(없)는 복음 옥스퍼드 원어 성경대전 로마서의 축복 엑스포지터스 성경연구주석 로이드존스의 요한일서 강해 요한이 전한 복음 He gave gifts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종교철학

일반 도서 20

순위	제 목
1	마시멜로 세번째 이야기 숨결이 바람 될 때
3	언어의 온도 호모 데우스
5	99%를 위한 경제학 이 모든 걸 처음부터 알았더라면 그릿 대한민국 부동산투자 너무 재밌어서 잠 못 드는 세계사 영어책 한 권 외워봤니? 완벽한 공부법
12	4차산업혁명의 충격 센서티브 나는 결심하지만 뇌는 비웃는다 명견만리2 아이의 사생활2 자존감 수업 시민의 교양 가슴뛰는 삶 (1시간에 1권) 쿼터독서법

환경직 목사님의 나라 사랑-이웃 사랑의 뜻을 실천하고 지역사회를 섬기기 위해 이용대상을 우리 교회 교역자와 성도들뿐 아니라 중구 주민과 직장인으로 확대했습니다.

우리 도서관은 현재 약 5만 권의 장서를 소장하고 있으며, 해마다 1500여 권이 신간 또는 기증으로 입수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http://library.revhan.net>)를 통해 소장 자료 확인, 대출 신청, 전자 자료 검색 등 온라인 서비스도 제공합니다(뒷장에 상세정보).

우리 도서관은 소장 자료의 약 70%가 기독교 자료로서 특성화된 도서관이지만 다양한 이용자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교양 자료와 청소년 대상 자료(문학, 역사학, 교양 도서와 기독교-시사-문화 관련 잡지(정기간행물))도 갖추고 있습니다. 어린이-청소년 도서와 시청각 자료(DVD) 역시 제한적인 수준이지만 자유롭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증(도서대출증)을 발급받으면 관외 대출도 가능합니다. 도서관 양식의 신청서와 신분증, 사진 1매(도서관에서 찍어드립니다)를 도서관 사서에게 제출하면 회원증(도서대출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구에 직장이 있는 분은 재직증명서 또는 사원증을 추가하면 됩니다. 관외 대출은 본인의 대출증으로만 가능합니다. 이용 시간 및 대출 규정은 아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서관이 자랑하는 서비스로 학위논문 및 학술 논문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전자도서관 서비스를 꼽을 수 있습니다.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RISS, KISS, DBPIA, E-article 등에서 제공하는 학술 논문들을 무제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DB 자료를 개별적으로 이용하려면 상당한 비용이 들지만 우리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자유롭게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를
알차게 이용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알아두면 그웨잇~!
홈페이지를 활용한
도서관 이용 팁!

1 내가 찾는 자료는 어디 있을까?

〈소장위치 안내 예시〉



2 희망도서를 신청할 수 있어요.

읽고 싶은 책이 도서관에 없다면? 도서관 사서를 통한 직접 신청 및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으로 희망도서 신청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우선 정리 신청' 서비스 : 찾는 자료를 빨리 보고 싶을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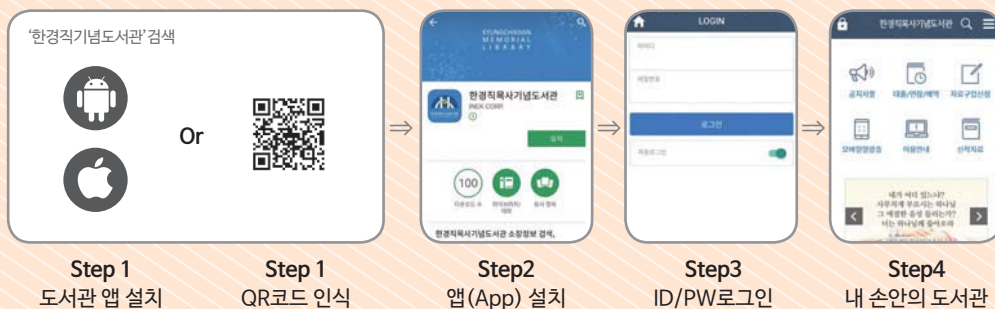
〈검색화면 예시〉



검색한 도서가 도서관에 있지만, '정리중'으로 아직 서가에 꽂히기 전인 상태의 경우, 소장정보의 부가기능에 있는 '우' 버튼을 누르면 보다 빨리 원하는 자료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4 모바일 앱 서비스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내 손 안에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및 애플에서 손쉽게 앱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도서 검색 - 희망도서 신청 - 모바일 열람증 활용 등 도서관 이용을 위한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도서대출증을 안 가지고 왔을 경우, 모바일 열람증을 제시하면 즉시 대출도 가능합니다.



5 가을독서캠페인 <2018 북적북적> Coming Soon!

가을독서캠페인 '북적북적'이 올해로 3회를 맞습니다. 도서관 이용의 활성화와 참여를 통한 기독교 독서 문화 확산을 위해, 2016년 가을부터 여러분의 지성을 두드렸던 이 캠페인은 신앙인으로서의 독서에 대한 동기 부여와 함께 책을 읽은 후에 글로 써보는 돌아보기 과정을 통해 독서의 즐거움을 느끼게 합니다. 참가 대상은 청소년과 청·장년 모두 가능하며, 올해 주제는 '다음 세대 vs 다른 세대'(사사기 2장 7절, 10절)입니다. 요즘 시대를 살아내야 하는 청소년들의 신앙과 비전에 도움이 되는 책들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참여하는 중·고등학생들에게는 지정도서를 무료로 드립니다. 학생들과 성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주요 서비스 내용

- 모바일 열람증
- 대출연장
- 도서 검색
- 희망도서 신청

제공 한경직목사기념도서관

이런 도서관도 있어요!



교육부 도서관

50주년기념관 802호와 803호를 터서 만든 너른 공간에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있다. 주말만 개관하며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책을 다양하게 구비하고 있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회원증을 만들면 관외대출이 가능하다.

동별관(봉사관에서 정문방향 옆 건물) 권사회 사무실에도 작지만 알찬 독서공간이 있다. 권사회에서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은 주일 오전 8시~오후 4시 30분까지 개관한다. 3천 여권의 장서를 갖추고 있으며 이 가운데 80% 정도가 기독교 서적이다. 북카페 형태로 시작했다 요즘은 관외대출(2주간) 서비스도 하고 있다. **만남**



권사회 도서관



섬세하고 예민한 사랑부 학생들 작은 목소리로 “선생님 좋아요”



정복희 권사
마포·영등포교구
사랑부 교사

먼저 부족한 저를 사랑하시어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귀한 사랑부 교사로 세워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1982년도 어느 날, 저는 모르는 사람을 따라 처음으로 영락교회에 왔습니다. 본당 2층에서 수요 2부 예배를 드렸는데, 그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시편 23편 강해였습니다. 아무 의지할 곳 없이 방황하던, 길 잃은 양 같던 저를 하나님께서는 영락교회로 인도하셨고, 참된 목자이신 주님의 사랑에 저는 눈물, 콧물을 흘리며 주님을 만났습니다. 말도 잘 못하고 숫기가 없어 남 앞에서 지 못하던 저였지만, 다음주 주일 아침 설레는 마음으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등록을 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례를 받고,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가르치고 싶어 교사양성부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985년도에는 유년부 교사로 교사의 첫걸음을 뒀습니다. 열심히 공과를 가지고 다니면서 공부하고 전화 심방하며 봉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인가 유년부 지도권사님께서 어떤 분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제가 아이들을 안아주고 기도해주던 모습이 너무 좋다며 고백했고, 결국 저의 남편이 되었습니다. 결혼 후 시어머니를 모시며 첫째 아이가 생기자 저는 유년부 교사를 그만두고 그 후 10년이란 세월을 교회와 집을 오가며 보냈습니다. 부푼 꿈을 가지고 아이들을 안고 기도하던 교사의 모습은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첫사랑을 회복시키기 위해 저에게 시련을 주셨습니다. 1996년도에 남편이 회사에서 불의의 사고로 장애를 입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남편이 한쪽 다리를 정상적으로 못 쓰는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고 나니 참으로 하



1998년 사랑부 창립후 한경직목사님과 함께한 사랑부 교사들

나눔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큰 고난이 닥치자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 중에도 남편이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봤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상처 부위가 아파 소리 지르고 울부짖는데, 남편은 하나도 안 아프다면서 도리어 간증을 하고 다녔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저는 하나님께 대한 마음을 회복하고 다시 교사로 섬기고자 교사 재교육을 받았습니다. 새롭게 교사로 섬기는 부서를 유년부로 할까 초등부로 할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곳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1998년도 3월에 영락교회에서 장애인 선교를 위한 사랑부를 창립한다는 소식에, 남편과 같이 교사로 봉사하기로 결정했고, 그해 4월부터 지금까지 20년을 사랑부 교사로 아이들을 섬겨 왔습니다. 남편이 중도에 장애를 경험함으로 사랑부에 더 애뜻하게 온 몸을 던져 헌신하며 봉사하게 된 것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1998년 4월, 4명의 어린 학생과 20여 명의 교사가 50주년기념관 203호에 모여서 창립예배를 드렸습니다. 장애 학생들을 섬긴다는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아이들은 말도 하지 못하고 교회 예배당에 들어가기조차 힘들어했습니다. 여러 신체적 장애 및 중복 장애에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학생들과 부모님들을 대할 때마다 두렵고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들에게 이루어질 모든 장애 극복 과정을 통해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아픔을 돌아보며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랑부 학생들의 행동과 표현이 너무나 낯설고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

에게 차별받고 소외되는 고통으로 머리를 다 쥐어뜯으며 자해한 학생도 있었습니다. 아무리 예배당 안으로 가자고 해도 거칠게 몸부림 치며 거부하는 학생,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폭력을 사용하거나, 입을 닫고 한마디도 하지 않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내하며 이해하고 함께하는 동안, 학생들은 친밀히 반응해 줬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선생님 좋아요”라고 말해 줄 때는 온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기쁨이 있었고, 또 말씀으로 변화하는 친구들의 모습을 통해 천국을 맛보기도 했습니다.



남산한옥마을에서 제자와 함께한 필자(좌측)

현재 사랑부는 교육관 1층에서 62명의 학생과 71명의 교사가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1:1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인원이 좁은 장소에서 예배드리다 보니, 매주 한바탕 소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공과 공부를 하려고 이동하려면 휠체어가 다니기 힘들어 야단법석입니다. 예배 중에 학생들이 대·소변을 보면 그것을 처리할 공간이 없어 조그만 사무실에서 처리합니다. 그러면 그 냄새가 사무실과 예배당에 가득차게 됩니다.

학생들은 어린 학생부터 50살이 넘는 학생까지 다양한데, 지적 능력과 사고력이 있는 학생들이 신변처리에 수치심을 느낄까 걱정도 많이 됩니다. 지체장애 학생들이 신체 활동력이나 언어 표현력은 부족하지만, 섬세하고 예민합니다. 우리 사랑부 학생들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직장을 구하고 일을 하지만 작업 환경과 대우가 열악합니다. 대우받으며 일할 수 있는 작업장이나 그룹홈도 필요합니다. 만남 카페에서도 사랑부 학생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부 학생들을 보실 때마다 많은 사랑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20년 동안 사랑부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인 우리 학생들이 10월 27일에 베다니홀에서 열게 될 연극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학생과 선생님들이 몸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두 오셔서 맘껏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시는 복된 시간이 되길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20년 동안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또 다른 많은 열매와 사랑과 기적들을 예비하심을 믿고 기대하며, 그리고 부족한 저를 주님의 교사로 세워주심에 감사드리며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남**



송경희 作 Acrylic on canvas 24.5×38.5cm 2015

그 음성

푸른 하늘
쏟아져 내리는 빛

세상의 아픔
몸으로 머무른 자리

마음 깊이 등지를 틀면
알알이 새겨지는 사람 이야기

깨끗한 눈이 되어
온 세상에 가득
한아름 품은 빛

나무 살 내음
흐르는 물에 띄워
산자락으로 저어간다

영혼의 먼지를 털어 내듯

캔버스 하얀 천 위에 두 손을 얹고 눈을 감는다.
무엇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끊임없이 떠오르는 많은 이야기들...
오늘도 나를 향해 손짓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물
밀듯 밀려온다.

30년의 긴 공백을 뚫고 붓을 잡았다. 나의 작품을
위해 붓을 든 것은 30년 만이었다. 먼 여행에서 돌
아와 짐을 내려놓은 듯... 그림으로부터 멀어져 있
는 자신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늘 마음이 무거웠다.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나를 보고 계신 주님.
끊임없이 사랑한다고 속삭여주시는 주님의 음성
에도 떨쳐버리기 힘든 세상의 짐이 나를 누를 때면
하늘을 본다. 빈 들판에 서 있는 듯한 허허로움에
고개를 들면 하늘 가득 밀려오는 하얀 구름 떼...
구름에 싸여 주님 계신 그곳으로 오르고 싶은 간절
한 소망에 가슴을 쓸어내리기도 한다.

깊은 밤. 잠에서 깨어나면 어둠 속에서 다가오는
힘들었던 기억을 밀어내며 찾는 주님의 손길. 그때
마다 주님은 언제나 그랬듯 따스롭게 감싸 안아 주
신다. 통곡하는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상한 갈
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
는 주님의 사랑 속에 힘을 얻는 매일의 날들...

삶에서 놓쳐버린 순간들을 되돌아보며 아파하기
보다는 걸음을 늦추고 다시 찾아올 그 순간을 알아
차릴 수 있는 지혜를 구한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만드시는 순간 가장 희미한 메아리까지도 놓치지
않고 기억하는 내가 되기 위해.

인생은 떠나보내야 할 때와 그 방법을 배우는 과
정이라고도 했다. 버려야 할 것과 간직해야 할 것
을 분별하는 능력을 지닐 수 있기를 기도한다. 보
내야 할 아픔과 어두움, 간직해야 할 평안과 사랑
의 마음들. 그 모습들을 그림에 담아 그 마음 그대
로 전하고 싶다.

하얀 캔버스를 마주하면 물밀듯 많은 상념들이
떠오른다. 화면 가득 마음이 채워지면 물감으로 그
리고, 칠하고, 뿌리며 만들어 나간다. 내게 있었던
많은 아픔과 기쁨의 기억들을 녹여 그림으로 표현
하고 그 그림을 통하여 위로를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한다.

주님의 눈길에 사로잡혀
지금 이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소서.
내 영혼의 창이 흐려지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주 여호와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밭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박국 3:19) **만남**



송경희 권사
서대문·은평교구
홍보출판부 실행위원, 고등부 교사



비언어적 전도, 가정복지사역

-사회봉사부 탐방

사회봉사부(부장 임종술 장로)는 성도들의 상부상조 정신을 함양하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정신으로 교회 내외에 봉사와 사회 구제 및 복지사업 등 사회봉사를 통한 복음 전파와 사회적 책임의식으로 교회의 사명을 다하고 있다.

매월 넷째 주일은 사회봉사주일로 영락 성도 1인 1품목 참여 캠페인

매월 넷째 주일은 사회봉사주일로 지키며, 이웃을 섬기기 위해 필요한 사회봉사금 모금과 함께 봉사미(쌀, 잡쌀, 현미, 잡곡류)와 생활필수용품들을 수집한다. 2018년부터는 컴퓨터, 가전제품, 각종 의류, 신발 등은 수집하지 않는다. 생활필수품을 품목 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식료품으로는 장기저장이 가능한 통조림류, 라면류와 소금, 설탕, 고추가루, 후추, 식용유, 참기름, 들기름 등의 양념류이며 주방용품으로는 주방세제, 수세미, 행주, 주걱, 국자, 냄비, 후라이팬, 각종 요리 도구류, 욕실용품으로는 세수수건, 비누, 치약, 칫솔, 샴푸, 세탁 세제, 휴지 등이다. 특히 사회봉사부의 봉사자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맡겨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고 있으며 영락 성도들의 봉사 참여와 기도, 1인 1품목 참여를 부탁하고 있다.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사회봉사부의 가정복지팀 소개

영락교회의 한 지체인 사회봉사부는 가정복지팀, 주일봉사팀, 이웃섬김팀, 방과후교실팀 등 4개 팀의 봉사자들로 구성되어 교회 내외에서 봉사를 통해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이달에는 그 가운데 가정복지팀을 소개한다. 가정복지팀은 방문조와 금요 샴푸조로 구성되어 있다. 방문조는 정신적, 신체적으로 일상 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들과 장애우들을 위해 가사지원 서비스, 개인 활동 서비스, 전화 및 방문을 통한 우애 서비스, 성경 읽어 주기, 신앙 상담과 심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금요 샴푸조는 백병원을 방문해 돌봄의 손길이 부족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을 위해 샴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가정복지팀 봉사자들은 매주 금요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의 겨자씨를 우리 사회 곳곳에 묵묵히 심고 있다. 이달에 게재하는 가정복지팀장(김송향 권사)의 간증을 통해 많은 교우들이 '나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자'고 마음먹고 사회봉사부 가정복지사역에 동참하실 수 있기를 바란다.

취재 최윤미 부선임기자

우리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자

-가정복지팀



김송향 권사
강서·구로·양천교구
사회봉사부 가정복지팀장

가정복지란 무엇일까?

가정복지란 모든 가정의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위한 사회적 서비스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가족문제, 생활문제, 노인문제, 아동문제, 부부문제 등에 대한 상담과 해결 등이 포함된다. 우리 교회에서 가정복지사업은 2000년도에 시작돼 지금에 이르고 있다.

교회 가정복지사업의 목적

사회봉사부에 소속된 가정복지사업은 우리 교회 성도 및 믿지 않는 복지 사각지대의 대상자들을 향해 함께 열려 있다. 교회적 가정복지사업의 목적은 영혼구원과 지금의 문제를 함께 나누며 같이 울고 웃으며 소망을 잃지 않게 함께 기도하는 것일 것이다.

사회봉사부 가정복지팀

우리 가정복지팀에는 두 개 조가 있는데, 그중 방문조는 성도님들의 요청으로 대상자가 확정되면 직접 찾아가 그분의 필요가 무엇인지 살피고 돕는다. 또 금요 삼푸조는 금요권찰공부 후 백병원을 방문해 두 개 또는 세 개 조로 나누어 영락교회 로고가 새겨진 앞치마를 두르고 간호선생님께서 허락한, 움직임이 불편한 환자분들에게 삼푸에서 드라이까지 완벽한 섬김의 자세로 머리를 감겨 드리고 있다. 병실을 나오면서 잊지 않는 말은 “빨리 나오세요”다. 물론 영육의 회복이다.

이웃의 말을 듣고 공감하는 비언어적 전도

오래 전 전도훈련을 받을 때 교회에서 쓰는 언어는 되도록 쓰지 말고, 이웃의 말을 듣고 공감하라고 배운 적이 있다. 전도의 방법에는 언어로 하는 전도와 행함으로 하는 비언어적 전도가 있는데 효과적인 전도가 무엇일까 생각할 때 비언어적 전도가 더 효율적일 때가 있음을 종종 듣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비언어적 행함을 실천하는 우리 가정복지팀이야말로 행함으로 가족 전체를 전도하는 고효율의 전도팀이 아닐까 은근 자부심을 느껴본다.

봉사자가 부족하여 축소된 가정복지사업

안타까운 현실은 예전에는 삼푸 봉사가 인천 길병원, 신일 병원까지 활발하게 진행됐는데 지금은 백병원 한 곳으로 축소되어 있다는 것이다. 가정방문팀 봉사자들도 은퇴가 가깝고, 시무하실 때 돌보시던 어르신들을 끝까지 돌보시겠다는 책임감으로 은퇴하신 권사님, 집사님들이 섬기고 있는 실정이다. 2년 간격으로 교육하고 알리고 봉사자들을 모으고 대상자들을 찾고자 노력해 보지만 청강생은 100~300명인데 반해 실제 봉사자들은 2~3명에 불과하다.

봉사하실 만한 분에게 전화 드리면 “~ 때문에 ~ 때문에”라며 거절한다. 언제 들어도 타당한 100점짜리 거절이다. 젊은 봉사자와 남녀 성비 균형을 이룬 봉사팀이 되기를 바라며, 불균형의 해소를 위해 실행팀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 대안을 교회에 요청해본다.



가정복지지역 봉사기회를 제직훈련과정에 넣는 방안

봉사자 확대 방안으로 집사, 권사 교육 시 사회복지기관 봉사뿐 아니라 구역이나 어려운 사람을 찾아 2회 정도 심방하는 훈련이 선행되면 바람직할 것 같다. 성비 균형을 위해서 안수집사 교육에도 적용이 가능하면 좋을 것 같다. 무엇보다 구역장들이 구역을 잘 살피고 대상자를 찾아서 섬길 때 구역이 살아나고 활성화되어 거룩한 지경이 확장될 것이라 믿는다.

우리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자

가정복지지역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다 보면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차고 넘치는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우리가 보기에도 참담한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을 대할 때면 부끄럽기 짝이 없는 나의 모습을 돌아보게 된다. 이제는 사회복지제도가 활발해서 목욕 봉사 또는 어려운 일은 사회복지사들이 대신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그분들이 교회 봉사팀인 우리를 기다리는 이유는 그분들의 말에 고개 고덕이며 반응해주는 걸 기뻐하시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오셨다. 영광의 자리를 내려놓고 힘없는 자들을 제자 삼고, 한낮에 사람을 피하여 물 길러 오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대중 앞에 나서지 못한 삭개오와 함께하기 위해, 그리고 나를 위해.... 우리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자. 예수님의 시선으로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찾고 섬길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대열에 속하기를 기대해 본다. **만남**

사회봉사부 사무실 위치: 교회 정문 옆 동별관 1층 연락처: 02)2280-0161~2



2018 교육부 여름사역

교육부 각 부서에서는 올 여름, 다음세대들의 하나님 경험을 위한 귀한 현장을 기획하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준비한 모든 사역의 현장 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영락의 다음세대가 하나님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로 중보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서	내용	주제	일시	장소
사랑부	여름수련회	사랑 충전! 세상의 빛으로	7/27(금)~29(주일)	코바코 수련원
영아부	여름성경학교	교회야 마을로 가자	7/7(토)~8(주일)	유치부실 (50주년기념관 2층)
유아부	여름성경학교		7/14(토)~15(주일)	선교관, 영락 유치원, 영락어린이집, 50주년기념관 2층
유치부	여름성경학교		7/21(토)~22(주일)	드림홀/50주년기념관 2, 3층
아동부	축구캠프	One Team, One Spirit, One Goal	8/1(수)~4(토)	설악수양관/속초시립운동장
유년부	여름성경학교	나는 왕의 자녀예요	7/27(금)~29(주일)	양주 딱따구리청소년수련원
초등부	여름성경학교	복음, 우리의 유일한 희망	7/27(금)~29(주일)	강화성산수련원
소년부	여름성경학교		7/27(금)~29(주일)	영락기도원
CEBC	Pajama party	-	7/20(금)~21(토)	사랑부실(주간보호센터)
	Ice day	-	8/5(주일)	교육관 4층
중등부	여름수련회	믿음의 모험	7/27(금)~29(주일)	태안 청포대썬셋수련원
	아웃리치	회복	8/9(목)~14(화)	러시아 및 북중 접경지역
고등부	여름수련회	섬김	7/26(목)~28(토)	김포 로그밸리
	YES 비전트립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8/6(월)~10(금)	일본 나가노 / 동경 지역
베드로부	여름수련회	당신은 괜찮은 사람인가요?	6/30(토)~7/1(주일)	영락기도원
대학부	단기선교	-	7/20(금)~28(토)	필리핀 트레세 마티에즈 (김춘자 선교사)
	여름수련회	사건의 공동체	7/4(수)~7(토)	설악 새동선수양관
청년부	하기선교봉사 (42차)	복음의 씨를 뿌리는 자, 일어나라!	8/12(주일)~16(목)	전북노회 장수시철(전북 장수)

중등부, 학부모 초청예배 여름수련회 소개와 간증 이어져



중등부(부장 김재완 장로)는 6월 10일(주일)에 50주년기념관 4층 중등부실에서 학부모 초청예배 및 학생회헌신예배를 드렸다. 350여명의 학생들과 부모들이 함께 모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다.

특별히 이번 학부모 초청예배는 생의 전환기에 있는 중등부 학생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변화를 결단하는 여름수련회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를 위하여 학생회 학생들이 직접 드라마를 제작하였고, 박지혜 학생이 인격적으로 만난 하나님에 대한 간증도 하였다.

또한 방송반 학생들이 제작한 영상을 통하여 수련회 장소에 대한 기대감도 높게 되었다. 이러한 학부모 초청예배를 통하여 다음세대 중등부에 대한 관심과 기도를 요청할 뿐만 아니라, 신앙의 가치를 공유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다.

제공 중등부 사진 원종석 기자

고등부, 학부모 초청예배 ‘Boys be ambitious!’



고등부(부장 이종근 장로)는 6월 17일(주일), 드림홀에서 ‘학부모 초청예배’를 드렸다. 임현우 지도목사는 ‘Boys be ambitious!’(다니엘 1:1-9)의 말씀을 통하여 ‘불안과 체념의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기 원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을 지키며 믿음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공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전하였다.

자녀와 함께 예배드리며 교회의 다음세대인 청소년을 양육하는 학부모와 교사 간의 공동체를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 관심과 격려와 기도로 비전을 공유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다.

고등부는 134대 ‘에이레네’ 학생회를 비롯하여 미디어반, 바울성경반, 문화연구반, 호산나반, 워십댄스반, 연극반, 영고찬 찬양대반, 이삭줍기반, 학생기자반 등 9개의 특활부서에 참여하고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경험하고 있다.

취재 최윤미 부선임기자 사진 원종석 기자

대학부 하계운동회 대광고등학교에서 열려



지난 5월 27일(주일) 서울시 동대문구 신설동 소재 대광고등학교에서 영락교회 대학부(부장 박홍준 장로) 하계운동회가 열렸다. 대학부 예배 참석인원 450명 중 약 200명에 달하는 인원이 함께 모여, 대광고등학교 체육관과 운동장을 오가며 주님 안에 하나되는 시간을 가졌다. 박홍준 장로의 기도로 시작한 운동회는 짝피구, 전략 줄다리기, 릴레이 달리기 등 알찬 프로그램으로 기획되어, 대학부 벗님들이 건강한 육과 영을 단련하는 시간을 제공했고, 오후 여섯시 백성우 목사의 기도로 마쳤다. 은혜롭게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제공 대학부

베드로부 야외예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지난 5월 13일(주일) 오전 10시 베드로부(부감 조병준 안수집사)가 영락기도원에서 야외예배를 드렸다. 1부 예배는 로벤(베드로부 찬양팀)의 찬양인도로 시작되어 홍만우 목사가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시 23:1~6)’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학생회가 주관한 2부 레크리에이션 시간에는 2개 조로 나누어 ‘몸으로 말해요’, ‘여왕피구’ 게임을 하며 교제를 나누었다. 이번 일정은 대학에 재도전하는 29기 학생들이 모처럼 일상에서 벗어나 쉼과 회복의 시간을 가지며, 다시 새롭게 마음을 다지는 시간이 되었다. 총 60여 명이 참석했다.

취재 박현옥 선임기자

하반기 맞이 특별새벽기도회 2018년 ‘반환점을 돌아서며’

매일 오전 6시~7시, 본당

날짜	6월 25일(월)	6월 26일(화)	6월 27일(수)	6월 28일(목)	6월 29일(금)	6월 30일(토)
말씀	가까운 길, 먼 길	연음과 누림	많은 것을 말는 비결	내가 네게 이를 때까지	현실보다 더 분명한 현실	고레스 왕 원년까지
본문	출애굽기 13:17-18	창세기 30:22-24	잠언 21:4-8	마태복음 2:13-23	사도행전 18:9-11	다니엘 1:17-21

복음의 씨를 뿌리는 영락 청년 2018 영락청년 선교비전 열려



청년부(부장 나선훈 장로)가 주최하는 2018 영락 청년 선교비전이 지난 5월 25일(금)부터 27일(주일)까지 '복음의 씨를 뿌리는 자'라는 주제로 반포교회 강운호 목사를 강사로 모시고 열렸다. 이번 선교비전에서 3차례에 걸쳐 말씀을 전한 강운호 목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25일 금요기도회),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26일 찬양말씀집회), '삶으로 예배하며'(주일 찬양예배)라는 주제의 설교를 통해 영락 청년과 영락교회가 감당해야 할 선교적 사명을 제시하고, 청년들의 마음에 뜨거운 선교적 열정과 비전을 고취시켰다. 아울러 선교비전 첫날인 25일 낮에는 선교기금 모금을 위한 선교바자회가 베다니광장에서 열렸고, 26일 오후에는 청년회 후원 선교사(몽골 루디아 선교사)와의 만남의 시간과 중보기도회가 진행되었으며, 마지막 날인 27일 오전에는 베다니광장에서 300청년 합창단의 마당찬양과 교회 주변 클린사역(쓰레기 줍기 봉사)을 펼치는 등 영락 청년들의 선교비전을 알리는 다양한 행사가 이어졌다.

제공 청년회 사진 원종석 기자

다음세대의 신앙을 기르는 교사 Bravo 영락 쌤!



지난 5월 20일(성령강림주일)은 교육주일 예배와 다양한 특별행사들이 이어졌다. 김운성 위임목사는 '한 부자의 가족사랑(눅 16:19-31)'이라는 설교를 통해 "영락 성도의 가족들, 이웃들 모두의 마음에 성령이 임재하며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바란다"고 전하며 교육주일을 맞아 교사를 위해 축복하였다.

또한 교육부(부장 박남진 장로)는 엘피스홀(제2식당)에서 교회학교 교사위로행사(Bravo 영락 쌤!)와 장기근속 교사 시상식을 가졌다. 교육부 백성우 목사는 '우리 교육의 길(창 4:20-26, 수 24:14-15)'이라는 특별예배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며 신뢰할 때 꿈과 비전과 은사를 주시고 신앙의 비전이 생기며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이 되기'를 전하였다. 사랑부 20년 근속 교사인 정복희 권사(49쪽 영락의 울타리 참조)의 간증과 410명에 이르는 교회교육부 연합 성가대의 '참 아름다워라', '참 되신 주'의 성가곡 합창과 연주로 특별찬양예배를 드렸다.

취재 최윤미 부선임 기자 사진 원종석 기자

뉴코리아국제학교, 김유정문학촌으로 문화체험 다녀와



지난 5월 19일(토) 뉴코리아국제학교(교장 임재광 장로)가 김유정문학촌으로 상반기 문화체험을 다녀왔다. 총 22명의 일행은 오전 8시 봉사관 앞에서 최한운 목사(북한선교부 지도목사)의 기도 후 버스로 이동해 일정을 시작했다. 최 목사는 “주님께서 항상 동행하심을 기억하며 오늘처럼 밝고 씩씩하게 살아가기를 바란다.”며 학생들을 격려했다. 김유정문학촌 탐방과 강촌레일바이크 체험은 뉴코리아국제학교 학생들에게 이색적인 경험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삶에 대한 용기와 도전을 심어주고 정서함양에도 큰 도움을 주었다.

취재 박현옥 선임기자

학교법인 영락학원 개교 66주년 기념예배



학교법인 영락학원이 개교 66주년을 맞아 지난 6월 8일(금) 오후 2시 30분 영락고 영락유헤스고등학교 대강당에서 기념예배를 드렸다. 박창후 목사(영락고 교목)의 인도로 시작된 이날 예배는 장병건 장로(이사)의 기도, 영락고등학교 합창단의 찬양에 이어 백성우 목사(영락교회 교육부)가 ‘이상과 비전(삼상 3:1~4)’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말씀 후 근속교직원과 모범교직원, ‘자랑스러운 영락인상’ 표창과 공로패 수여를 하고, 양희성 교장(영락고)의 인사에 이어 백성우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제공 영락학원

신앙아카데미 여름 스피치 특강



일시 : 2018년 7월 8일(주일) 오후 1시 ~ 2시30분

장소 : 봉사관 지하 예배실

주제 : 내 입술의 모든 말이 주께 열납되기를 바라나이다

강사 : 정보영(수영로교회 집사)

정보영스피치 및 PI연구소 대표, 前 서울MBC 아나운서

안수집사회 말씀묵상기도수련회 ‘하나님의 임재연습’



지난 6월 6일 안수집사회 말씀묵상기도수련회가 70명의 회원 및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남한산성 영락수련원에서 실시되었다. 회장 정남출 안수집사의 인도, 옥응대 안수집사의 기도와 41기 특송 후, 유재경 목사는 시편 42편 1절~5절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널 사랑한다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는 말씀을 선포하였다. 이어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를 통해 널리 알려지고 ‘부활의 로렌스’란 별칭을 얻었던 로렌스형제의 ‘하나님의 임재연습’이란 교재를 중심으로 고전강독의 시간을 가졌다.

제공 안수집사회

전도훈련학교 수료식 황금어장 전도하는 소명 다져



6월 2일(토요일)전도훈련 31기), 6월 19일(화요일)전도훈련 9기) 양일에 걸쳐 전도훈련학교(전도폭발훈련) 수료식이 각각 있었다. 이번 훈련부터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여 복음전문 암기 과정을 간소화하고 과제물과 필기시험을 폐지하는 등 훈련생들의 부담을 줄여 전도를 일상화하는 방향으로 전면 보완 수정되었다. 친인척, 지인, 직장동료, 군부대, 병원, 학원, 교도소 등 전도의 황금어장에서 꾸준히 전도하며 전도의 소명을 일깨우는 훈련프로그램에 전교인이 거룩한 열정을 품고 동참하기를 부탁드린다.

제공 전도폭발훈련팀

영락미술인선교회가 참가한 제6회 크리스천 아트피스트 전

제6회 대한민국 크리스천 아트피스트(KCAF2018) 전시회가 2018년 6월 1일부터 6월 17일까지 사랑의 교회에 있었다. ‘하나님과 함께’라는 주제로 17명의 영락미술인선교회원들이 참가하였다.

영락미술인선교회(회장 김갑수, 010-4264-7408)는 40여 명의 작가들이 활동하는 선교부 문화선교 산하 단체이다. 미술을 전공하신 영락교회 성도님들의 회원가입을 환영하며 2018년 전시회에도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

제공 영락미술인선교회

향존직선거 투표결과와 피택자 감사예배



2018년 향존직 선거를 5월 20일(주일) 1차 투표, 5월 27일(주일) 2차 투표, 6월 3일(주일) 3차 투표로 진행하였다. 투표 결과 장로 3명과 안수집사 19명이 피택되었다. 6월 13일(수), 수요일 2부 예배 후 봉사관 지하 1층 예배실에서 올해 피택자 감사기도회를 드렸다.

장로 피택자(3명) 김호섭 양성호 김종태

안수집사 피택자(19명) 홍성표 김은형 손두상 변계환 박상수 문영환 정효선 양승관 임성기 조광래
현재호 최현우 전태성 김종범 최충권 박효진 강효식 정광훈 조민태

제공 선거집행위원회 사진 원종석 기자

양육과 돌봄의 손길들, 영락주간보호센터 원예수업 작품 진열 판매



교육관 1층 영락주간보호센터 학생들이 주중에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모여 교육을 받는다. 매주 금요일에 모이는 원예수업이며, 수업시간에 학생들이 만드는 다양한 원예작품은 센터 앞에 진열되어 판매하고 있다. 문의전화 02)2280-0278

남선교회 연합체육대회, 비전100년을 향하다



지난 5월19일, 대광고등학교에서 ‘2018년도 남선교회 연합체육대회’를 개최하였다. 김운성 위임목사가 “너희도 상을 받도록(고전 9:24)”을 주제로 말씀을 전하였다. 1남선교회장(박성만 장로)이 개회를 선언함으로 연합체육대회 행사가 시작되었다. 이번 대회는 총 4개팀 믿음팀, 소망팀, 사랑팀, 화평팀으로 편성되어 진행되었다. 1,2,3,4 남선교회원과 가족들 500여명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열

심히 경기에 임하였다. 보디가드피구, 탁구, 족구, 지네발게임, 과자 따먹기, 계주, 경품추첨 등 다양한 경기와 게임을 통하여 화합과 친목을 다지는 소중한 시간이 이어졌다. ‘비전100년을 향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남선교회’의 선교 비전을 함께 나누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다.

제공 남선교회

제8회 한마음 한가족 가족수련회



일 정: 8월 9일(목) ~ 11일(토) 2박 3일

장 소: 속초 추양하우스 및 주변 해안

대 상: 미취학 및 초등학생 자녀와 부모(선착순 18가정)

참 가 비: 가족 당 30만원

프로그램: 가족특강, 가족기도회, 물놀이, 가족 테마놀이 등

참가문의: 7월 1일(주일)까지 상담부 2280-0171, 010-8609-1971

새가족 환영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일 (5월 2일~6월 3일)

교구 : 70은 고등부, 77은 국제예배, 80은 대학부, 90은 청년부
구역 : 000은 가동록, 99는 보류, 888은 교육부

등록일	이름	교구	구역
5월 2일	최순도	11	062
5월 6일	김기원	16	000
	진경희	11	062
	최모세	08	052
	한도형	07	006
	한재희	17	000
5월 13일	권능오주	04	000
	황성연	16	000
	박진아	16	000
	정미화	08	000
	김민정	17	000
	조진희	16	000
	권세웅	11	029
	안지안	08	061
5월 20일	황옥선	13	042
	강정순	07	012
	정혜선	06	054
	이형중	02	005
	정은주	06	054
	이보영	02	005
	조예진	04	065
	이시우	06	000
	김태리	04	098
5월 27일	권명자	16	000
	김주현	12	043
	윤효정	02	000
	천희숙	04	000

등록일	이름	교구	구역
5월 27일	김연창	07	000
	박성은	03	000
	김미례	14	000
	김병희	05	058
	강경호	10	000
	최찬미	03	000
	이지호	09	052
	박성민	10	043
6월 3일	강태오	04	016
	송복희	06	019
	안명숙	14	000
	최영숙	09	044
	강노전	08	000
	이상길	09	038
	김동휘	10	000
	김영구	04	000
	김계순	18	039
	이명현	13	000
	이정옥	08	000
	신창균	14	000
	하승희	17	000
	강혜민	18	039
	김수연	07	000
	천제신	10	000
	정도현	10	029
	김서윤	15	007

5월 사료 기증 현황

기증자	기증일	기증사료
김선옥 권사 (강동·송파교구)	5/8	1991년 11월 임영수 목사 주일설교 일반음성테이프 외 시청각류 25건
장경미 권사 (강서·구로·양천교구)	5/8	IWE(국제예배) 부서 소개 팸플릿 외 박물류 2건 2008년~2015년 IWE(국제예배) 예배 순서지 128건 1995년 영락청년 3·4월호 1건
유병렬 집사	5/20	1973년 제 7회 영락유치원 졸업 앨범 1건
강성관 집사 (관악·동작·금천교구)	5/20	제 7회 영락유치원 보육 증서 1건
최성보 은퇴권사 (강북·도봉교구)	5/20	해설 찬송가 외 도서관행물류 3건 2011년 3월 2일 제 30회 정기총회 보고서 1건 1988년 권사회 권사명부 1건

사료를 기다립니다

1. 토요음악회 1회 문서, 사진, 포스터 등의 사료
2. 1960년도 이전 사진

문의 : 역사자료실 ☎02)2280-0357

목회력

7月

- | | |
|---------|-------------------------------|
| 1일(주일) | 젊은이·사랑부예배 성찬, 찬양예배 성찬, 세례·입교식 |
| 8일(주일) | 제직회 |
| 22일(주일) | 사회봉사주일, 심방준비회 |

>> 영락화랑 : 아름다운 묵상



숨도 쉴 수 없고 자꾸만 밑으로 가라
앉는 내게 예수님이 손을 내미신다.

“괜찮아... 별일 아니야, 내 손을 잡
으렴”

언제나 주님은 내게 손을 내밀고 계
셨는데 그제서야 그분의 손인 것을

알아본다. 파도처럼 밀려오는 두려움에 휩쓸려 온몸이 깊
은 바닷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만 같았는데 그 손을 잡는
순간 나는 비상하고 날아오른다. 블랙홀 같은 고난 속에
서 만난 예수님이다.

한국 미술인선교회와 미국 기독교이미지(Foundation
Arts) Haven Light사에서 작품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성
작가는 파도가 무서워 물에 빠졌던 베드로에게 내밀었던
예수님의 손을 관람자 시각의 구도로, 그림을 보는 사람이
마치 물에 빠진 것 같은 체험을 하도록 의도하여 표현했다
고 한다. 그의 작품을 통해 마약중독과 자살 충동을 극복하
거나 깨어진 가정이 회복되는 등,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고 간증한다. 예술작품을 통해 위로와 치유,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는 작가의 마음은 곧 하나님이
주신 마음일 것이다.

최진희 편집위원

>> 독자에게 드리는 편지

이달 「만남」엔 유난히 ‘손길’이 많죠? 표지부터 보실까요? 영
락주간보호센터 학생들의 ‘손길’로 정성껏 만들고 가꾼 원예작품
들을 담은 사진입니다. 참 아름다운 손길입니다. 그 뒤 만남의 초
점은 어떻습니까? 아예 ‘손길들’로 꽉 차 있습니다. 믿음으로 복
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한 교회를 세워가자고 베다니광장에 길게
늘여놓은 화폭에 가득 채워가며 유치부부터 청년부까지 너도나
도 약속의 손도장을 꼭꼭 누르며 찍었답니다. 얼마나 예쁘지요...

그 뒤에 이어지는 특별기획 코너도 보세요. 영락교회 믿음의 선
진들이 ‘손길’을 펼쳐 이미 오래전 개척하거나 건축한 농어촌 미
자립교회 사역을 요즘 다시 돌아보며 양육과 돌봄의 ‘손길’을 건
네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선교의 ‘손길’을 펼치느라 여념이 없는 김춘자 선교사는 “선교
사는 무엇으로 사는가?”라며 마치 우리에게 ‘예수 믿는 자는 무
엇으로 사느냐’고 강력하게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지면이
부족하여 맨 뒤 영락화랑으로 훌쩍 넘어가겠습니다.

물속으로 가라앉는 나에게 내미신 예수님의 ‘손길’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달 특집 주제가 ‘양육과 돌봄’입니다. 사랑의 ‘손길’
이 필요합니다. 교회생활을 넘어서서 신앙생활로 부지런한 우리
들의 손길 위에 주님 예수의 피 마르지 않은 사랑의 ‘손길’이 늘
포개어져 몸된 교회 안에 샘솟는 기쁨이 늘 충만하길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편집장 김병욱 안수집사

>> 독자의견

- 영락문화와 소식의 전당인 「만남」지를 대할 때마다 지식이 새록 새록 돋는것 같다. “백석의 전, 영락교회 본당의 역사”와 “교회 안의 문화유산과
예술을 찾아서”를 통해 내가 드리고 있는 예배당과 시설을 이해하고 애착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 고은주 집사 (서초교구)

▶ 독자의견을 기다립니다. [홍보출판부 youngnak-hb@daum.net](mailto:youngnak-hb@daum.net) 02)2280-0197~8

만남

2018년 7월호
통권 534호

편집위원회

【만남편집소위원회】 편집기획팀 | 김홍범 안집, 박선이 집사(선임), 박종하 집사, 우대권 청년, 임대현 집사, 조성일 집사, 최진희 집사

만남기자팀 | 강은진 집사, 목진경 청년, 박진현 집사, 박현옥 권사(선임), 오승현 청년, 윤진경 집사, 최윤미 집사(부선임)

만남교열팀 | 김관용 집사, 김연경 권사(선임), 박인이 집사, 이광미 권사 【디지털편집(준비)소위원회】 만남클라우드팀 | 김광만 집사,

류정현 집사, 목진경 청년, 박종하 집사(선임), 오승현 청년, 우대권 청년, 디지털기자팀 | 김경옥 권사, 김수연 집사, 설재훈 안집(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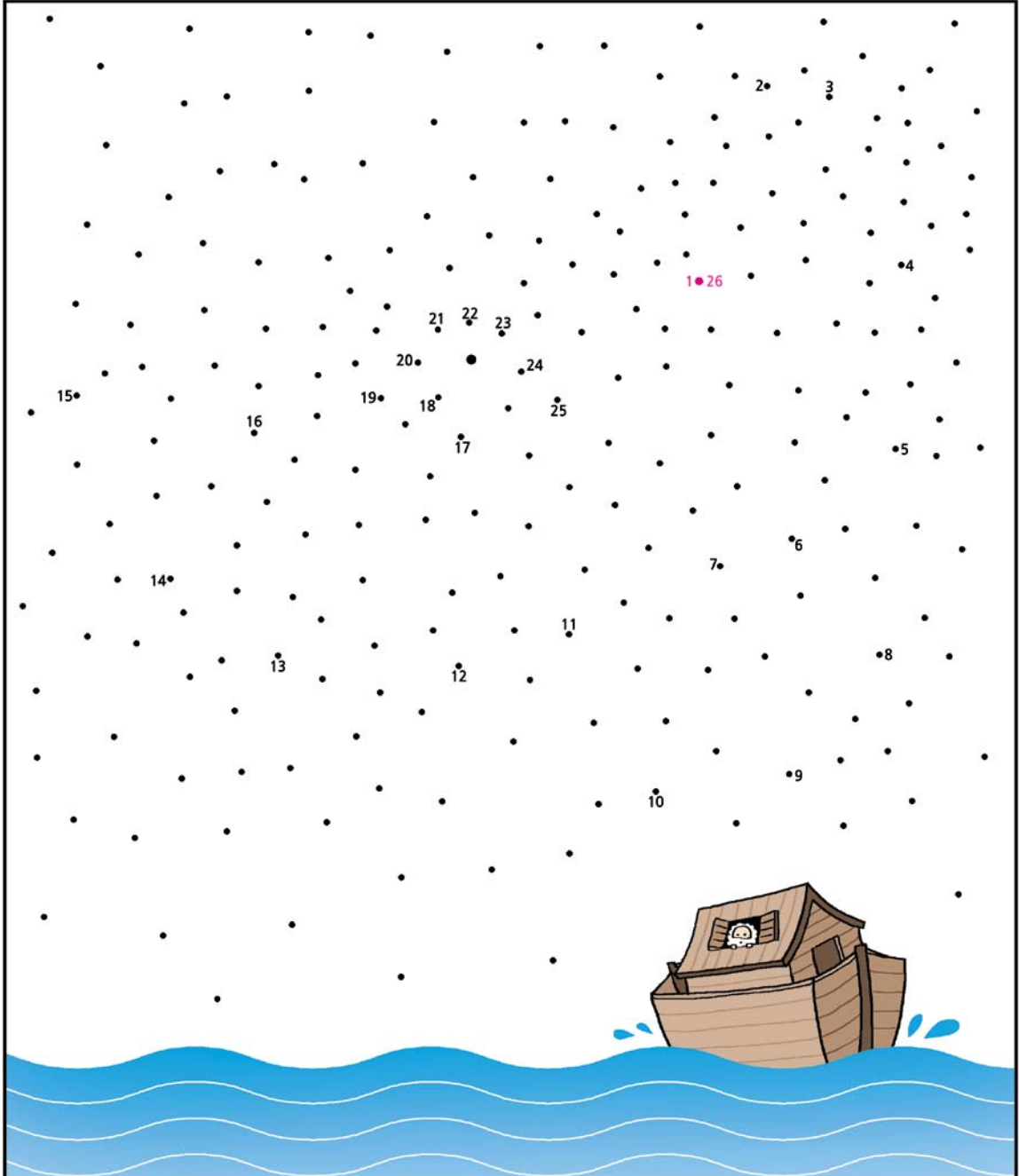
송경희 권사, 이동훈 집사, 인미 집사(부선임), 사진기자팀 | 김한기 집사, 박홍기 집사(선임), 원종석 집사, 유승현 성도, 이미혜 권사(부선임)

>> 윤진경의 함께해보아요

점잇기 이 코너는 영락의 모든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미있는 놀이로 구성됩니다.

이 동물은 무엇일까요? 1번에서 시작해서 26번까지, 26개의 점을 연결해 보세요. 함정이 되는 점이 많으니 숫자를 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창세기 8장 참고)

이름 : () 연락처 : ()



2018년 제58회 산상기도회

주제 : 질서 있고 화평한 교회(고전 14:33상)

1차

8월 1일(수)~3일(금)

강사
박성규 목사(부산부전교회)



교 구	목 사
1(강남)	박규성 목사
4(중구·용산)	이관형 목사
7(서대문·은평)	박지운 목사
8(동대문·종로)	한현수 목사
10(종로·성북)	황광용 목사
12(강북·도봉)	김정희 목사
13(서초)	차동혁 목사
15(성남·분당)	임현우 목사
17(안양·수원)	김충섭 목사

2차

8월 8일(수)~10일(금)

강사
정영택 목사(경주제일교회)



교 구	목 사
2(강동·송파)	백성우 목사
3(성동·광진)	유재경 목사
5(관악·동작·금천)	최한윤 목사
6(강서·구로·양천)	김태균 목사
9(마포·영등포)	박재현 목사
11(노원)	김응신 목사
14(인천)	남정열 목사
16(고양·파주)	최승도 목사
18(용인·화성)	박성은 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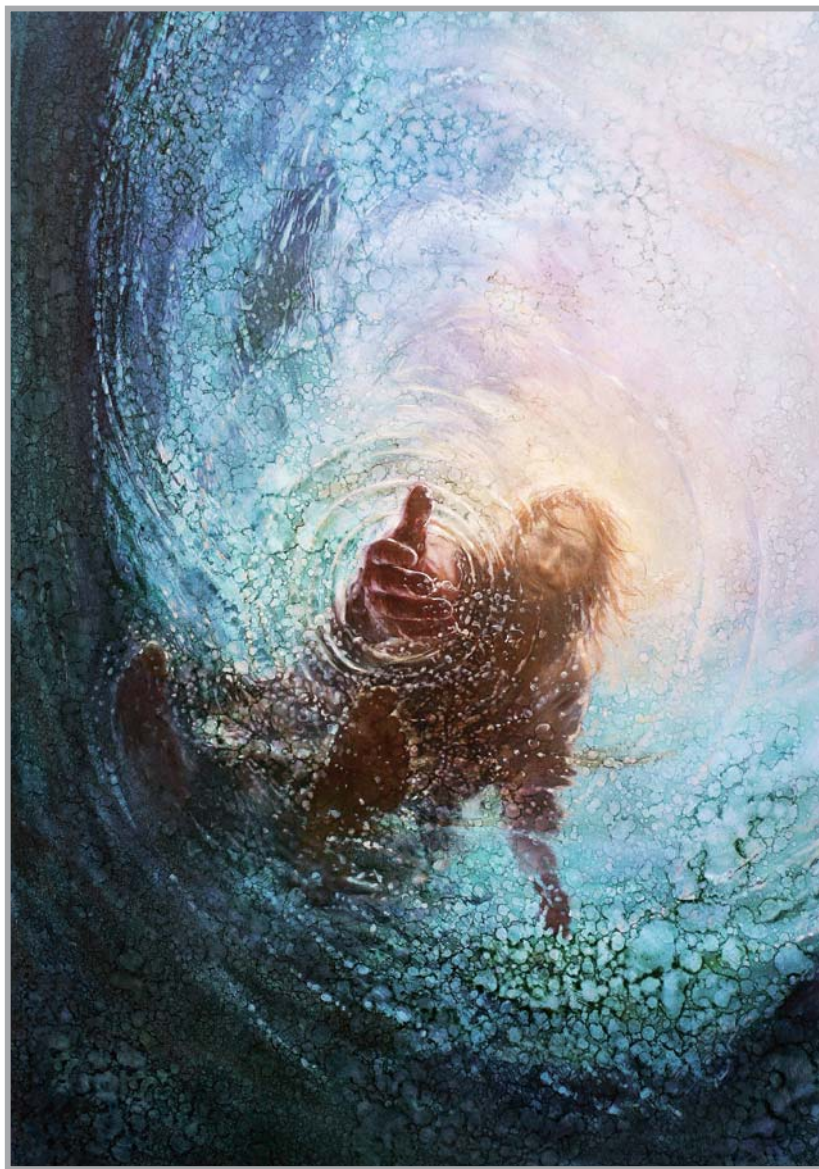
산상기도회기간
기도원 셔틀버스

탑승장소 지하철 4호선 수유역 4번 출구 전방 120m 삼성화재(국민은행) 건물을 끼고 좌측 방향으로 50m GS25편의점 앞 승차

운행시간 8/1일(수) 오후 12:30~23:00 수시운행
8/2(목)~3일(금) 새벽 05:30 / 05:45 / 06:00 주간 08:00~23:00 수시운행
8/8일(수) 오후 12:30~23:00 수시운행
8/9(목)~10일(금) 새벽 05:30 / 05:45 / 06:00 주간 08:00~23:00 수시운행

영락화랑

아름다운 묵상



김용성 안수집사(극동교회), 유화물감, 60.6×90.9cm, 2013

주님의 손길(Hands of God)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시편 69:1~2)